朝鮮日報
夕刊 八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 朝鮮日報社

空席中의三閣僚를 急速補充키로決定
具體的革新政策을中外에宣明
總選擧前內閣陣容强化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政界刷新을 目標로 今回總選擧에 臨함에際하야 一般國民에게 今回解散理由를 徹底케하고 또 政府가 漸次行하려하는 具體的革新政策을 中外에 宣明하는同時에 其實行에 當하야 內閣의陣容을 强化하기爲하야 아즉空席으로 되여잇는 文部 鐵道 拓務三閣僚의 椅子를急速補充하기로 決定하고 議會中에서 [illegible]中인 專任閣僚交涉을 此際에促進하야 可及的 選擧前에 其專任을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政府로서는 補充할境遇에는 三閣僚를 同時에決定할 意向인데 議會의 突發的解散及 新黨運動等을中心으로 政府對政黨及關係 一般政情은 極히 複雜微妙하바 政府로서도 其人選에는 相當히 愼重을期할 必要가잇스므로 果然政府가 希望한과如히 急速히 決定할수잇슬는지는 아직疑問이다 最近林首相及 政府首腦部의 動向과 아울러 其推移는 자못 注目되는다

全面的通商調整에 外務當局積極進出

【東京電話同盟】外務省에서는 懸案이든 日濠日印日蘭의 三大通商交涉도 昨年末日濠交涉이 成立된것을 비롯하야 去三月에는 九個月을 要한日印會商이 妥結을짓고 또近日에는 日蘭會商成立이 豫想되게되엿스므로 外務省에서는 右三大通商交涉의 解決을 機會로 中南米諸國을 爲始하야 各國과도 全面的으로 通商貿易關係의 調整促進에 邁進하기로 方針을決定하엿다 그리고 亞細亞에잇서서 隣邦中華民國과의 經濟提携를 眼目으로最近에歸國한 兒玉團長을 首班으로한 對中經濟使節團의 報告及駐外當局의 報告를基礎로 全般的으로 經濟提携의 根本方針을考究하고잇다 그리고 土耳其도即時暫定通商協定成立을 보게되엿는데 其他佛領印度支那와間에도 貿易調整을 圖하기로되여 近近이趣旨를 駐外當局에 訓令하기로되엿다

獨經濟相白耳義訪問

【伯林七日發同盟】獨逸經濟相샤하트博士는 來十三日브륫셀府를 訪問하기로 協定하고 本月其趣旨를 公式으로 發表하엿다 샤하트博士는 白耳義首相반질란드氏와 會見하고 英佛兩國政府의 示唆에 基하야 國際經濟會議招集問題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하고 미리政府의 態度를 披瀝하리라고 觀測되나 事하려 간것이다 하고 더말하기를 避하엿다

駐歐大公使會合
各種情報를交換協議

【伯林七日發同盟】브류셀駐剳來栖大使 프라그駐剳 藤井公使 維也納駐剳 谷公使及 莫斯科駐剳重光大使는 伯林滯在 武者小路駐獨大使를 中心으로 現下의重要政局에 對하야 數日來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特히 國際經濟會議召集氣運에 關하여는 深甚注意하고 各國情報를 모아 今後見解에 對하야 協議中인모양이다 以外에 日獨反共協定의指導 獨佛勢力關係等 其他 現下에잇서 人民戰線運動 蘇聯邦內에잇서 反幹部爭鬪 新로카르노 條約案에 對한 獨逸政府의見解等에 對하여도 各其 情報를交換하고잇는模樣이다

國際經濟會議에對한 外務當局의見解

【東京電話同盟】英佛兩國政府가國際通商障害를 除去코저 白耳義首相을 利用하야 國際經濟會議의開催를 企圖하고잇는바 白政府는 이미 六日緊急閣議에서 斡旋役을 引受하기로 決定하엿스며또 米國、獨逸兩國政府도이에贊成하야 同會議開催의 氣運은相當히濃厚하게되엿다 同會議는 經濟的對立緩和를目標로 關稅障壁低下 資源再調整과自由通商主義를 主張하야 世界平和的基礎에 必要한 諸問題를 檢討할터인모로 通商自由 資源分配를 主張하는 日本政府는 그 進行에 重大關心을 가지고잇다 日本政府에對하야는 全會議에關하야 아직아무意思表示는 업스나右에對한 外務當局의 見解는 大體左와如하다

通商自由制度의 再延을 圖하는同時에 世界資源의 公平한分配問題를 解決하고 世界에 瀰漫한 戰爭氣分을 緩和하야 世界平和에 貢獻코저함은 日本의 旣定方針이다 따라서目下歐洲에 傳하고잇는 國際經濟會議가 經濟上의 障碍를除去함을 目的으로한다면 日本의 外方針과 一致하는바이다 이미 昨年來歐洲諸國은 通貨切下 關稅輕減을 行하고 通商障害除去의 必要에 接近하는것으로 歡迎되여잇다 그러나 歐洲의 一部에서는 多少反對的空氣도 잇고 또 會議開催까지에는 아직充分히 機가熟치안흔 傾이잇스나 假令 會議가 開催되지안터라도 英國과가튼 有力國이率先하야 通商障碍除去에 出馬한다면 他諸國이이에 追隨하야 世界經濟回復에이를것은 必至함으로 會議의開催를 云云함보다도 먼저大國이率先하야 通商障碍撤廢의 決意를 具體化함이 先決要件이다

米大統領特使데氏 各國代表와折衝
關稅障壁撤去의必要를强調
經濟的軍縮案基礎로

【倫敦八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特使노르만·데비스氏는 世界砂糖會議에出席키爲하야 倫敦에 進出한機會에 佛國代表스피나스經濟相 막도날드 英國植相等을 爲始하야 各國代表와 자조 私的折衝을거듭하야 關稅障壁撤去의必要를强調하고잇는데 佛國代表를爲始하야 各國代表는 意外로消極的임으로 國際經濟會議開催까지는 容易치안흐리라고 觀測되다

確聞하면 데비스代表는 極히率直하게端的으로 國際政局의重大한所以를指摘하고 破局을阻止하는見地에서 米國政府는 적어도關稅障壁을 低下식힘에잇서서는 如何한 이니시에티브라도 支持를 不惜하는旨를 言明하엿다고하는데 佛國代表스피나스經濟相은

一、經濟上의諸懸案은 政治問題와 密接한關係가잇고
一、政治問題를解決치안는限 經濟上의懸案을 處理하기는不可能하다

고主張한다고傳한다

他方英國政府도 現在相互的通商協定에依하야 關稅障壁을노피하고 大戰前의經濟市場을 復活시키려는關係上 輸入配定制撤廢案等에 갑작이同意하리라고는 期待할수업다

데비스代表는 九日 이든英國外相과 會見하고 經濟的 軍縮案을基礎로 國際政局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할터인데 目下의情勢로는 各國代表가모다 何等措置를 講究치안흐면 안될것이라고 思惟하면서 他國政府가 具體案을提示하는것을 靜觀하려하는 態度이다 (寫眞은 데비스氏)

對葡新通商協定開始

【東京電話同盟】葡萄牙政府는 昭和九年八月 日本及葡萄牙間의 暫行通商協定廢止를 通告하야 同年十一月末에失效된것을 翌年三月까지 有効期間을 延長하고 爾來兩國은 通商上無條約狀態로 되엿는것이다 葡萄牙는 原則으로 本邦品에는 最惡國待遇를 與하고잇스나 兩國間의 通商關係를 現在와가티 不安定하대로 放置하는것은 妥當하지못하므로 外務當局은 駐外當局에 對하야 新通商條約締結을 開始하도록 近近訓令하기로되엿다

師團長會議第三日

【東京電話同盟】師團長會議第三日은 八日午前九時半 敎育總監部에서 開催 寺內總監의 約十五分間에 亘한敎育練成에 關한 訓示 香月本部長의 口演이잇슨後 同十時十分 懇談會에 入하야 同十一時半에 終了할 陸軍省 參謀本部 敎育總監部에서三日間의 會議를 終了하엿나 그리고 杉山陸相은 正午 各軍司令官 [illegible] 在京將校 六百二十六名을 戶山學校에 招待하고 晝餐會를 開催하엿다

人事·集會

▲三橋警務局長 八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 大邱消防驛台會演習에參席 十日午前七時十二分歸任豫定
▲矢島農林局長 東京出張中十日午後一時三十五分歸任豫定
▲林財務局長 東京出張中 十四日午後一時三十五分歸任豫定
▲孫永穆氏(全北道知事)赴任人事次來社
▲江口鈴太氏(朝鮮總督府水産製品檢査所長) 新任人事次來社
▲梅澤慶三郎氏(朝鮮總督府囑託)學務局社會敎育課體育主任으로就任人事次本社來訪
▲古野伊之助氏(同盟通信社常務理事)入京人事次 八日來社、同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發東京에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東京에出張中이엿든바 八日午後一時卅五分 京城驛着歸任

張滿洲國總理大臣 來二十日에入京
朝滿產業一元化會議를開催

滿洲國總理大臣張景惠氏는 [illegible]島를 經由하야 來二十日入京하야 二十一日부터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南總督、大野政務總監以下各關係局課長이 列席하야 朝滿間懸案經濟의 一元化에 對한 會議를 開催하고 全面的으로 懸案中의 諸問題를 檢討協議할터인바 이 準備로 駐滿朝鮮部事務官이 七日入京하야 方今總督府와 折衝中이다

各派別立候補 (八日正午現在)

【東京電話同盟】八日正午現在各派立候補數는 左와如하다

民政	一五六
政友	一三六
昭和	二二
社大	五一
國同	一四
東方	一二
諸派	二七
中立	四九
合計	四六六
八日立候補屆出	三
立候補辭退	三

本社參觀

▲文化學院生徒四十二名 金奉洪氏引率下本社見學

新"作戰十八號" 布哇冲서立體戰
米海軍大演習(十六日開始)

【산페드로(칼리포니아州)發電】米國海軍年次大演習은 聯合艦隊艦艇百四十二隻 空軍四百七十四機를參加 헤프반提督의 統帥下에 十六日부터 一個月餘에 亘하야 東太平洋에서 行할터인데 헤프반司令長官은 五日 演習計畫에 對하야 如左히發表하엿다

一、第一期 聯合艦隊所屬軍艦百四十二隻、空軍四百七十四機는 四月十六日 로스안젤스、롱그피-치、及 산디에고를拔錨、即時南칼리포니아海上에集結、同時布哇에 向하야 布哇群島에서 三日間 오아프島攻擊演習을行할터인데 同演習은 陸海軍合同하야 오아프島防備施設의試驗을 主要目的으로한다 布哇演習을終了한後 艦隊는 히로우이島에서 燃料 貨物을補給할터이다

一、第二期演習 다음에艦隊는 一九三五의作戰第十八號를修正한想定「作戰第十八號」에基하야 布哇群島의 沖合과 赤道洋上에서 C·C·볼러드提督이引率한 靑軍과 W·레라한提督이 引率한 白軍間에 前後十日間동안 立體戰을 行할터이라한다

八面鋒

◇中國은 四千年來一貫한平和方針을 外交의原則으로한다고、王外交部長聲明。
◇日、四海兄弟四字는 實로이 施政方針을指示하는것으로서中國國民으로서 이것을信奉치안는者업다고。
◇올소、올소。原理原則으로야 孔孟以下先聖의遺訓이 게시니 中國이 世界第一。
◇그러나 政治는理論이아니오 壓力이라는것이 現代觀念인以上、四海兄弟가 말대로 쉬울는지。
◇生產力을擴充코저 勞働者의保護를 考慮하랴한다고。
◇林內閣의 新勞働政策으로는 허울이조와보이나 賃銀과物價를同時에올리면 도로 阿彌陀佛。

近衛議長을訪問 林首相意見交換
議會解散經緯와今後方針說明

【東京電話同盟】政黨이 時局에 對한 認識이 업다하야 解散을 斷行한 林首相은 獨自의政策을 決定하야 國民에게 信任을 問하기로 決意하고 六日平沼樞府議長을 訪問、議會解散을 斷行하기까지의 經緯及 今後方針에 對하야 說明하고 重要會見을遂하엿는데 八日午前八時五十分다시 永田町官舍에 近衛貴族院議長을訪問하고

一、政黨에 時局을收拾할만한認識이 업기때문에 議會의刷新强化를 決意한데서 解散을斷行한理由
一、今後政局에 處할 決意
一、政府가 今後實行할 政策大綱

을詳細說明하고 諒解를求하야近衛公의意見을 徵한後 目下缺員으로되여잇는文部 拓務 鐵道三大臣의補充問題에對하여도 隔意업시 意見을 交換하고 同九時三十五分 辭去하야 首相官邸에 入하엿는데 林首相은 右에關하야 今日 近衛公을 訪問한것은人

秩父宮同妃兩殿下 『사담프톤』御向發

【紐育에서 加藤同盟特派員 七日發】御多忙하신 紐育의 第一日을 終了하신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御休養하실 겨를도업시 七日早朝부터 御二日의 御日程에 入하시엿다 爲先 秩父宮殿下께서는 午前九時 호텔·피엘을 御出發、隨員一同自動車七臺에 分乘하고 扈從、同九時十五分 紐育自然科學博物館에 御到着、館內를 御巡覽하시고 同十一時十五分 同博物館御發 同十一時三十分호텔에御歸還하시엿다 一方妃殿下께서는 午前九時三十分 若杉總領事夫人 山座御用掛를 거나리시고 호텔을御出發하시와 御買物하시고 正午호텔에 御歸還 御少憩한後 午後一時호텔御出發 큐나드·화이트·스타埠頭에向하시와 七日午後二時(日本時間八日午前四時)퀸·메리號에 御乘船 紐育御發 一路사담프톤港에向하시엿다

順宮殿下 學習院에御入學

【東京電話同盟】順宮殿下께서는 八日 學習院前期一年生으로 御入學하시엿다 當日 順宮殿下께서는 御姉宮 照宮 孝宮殿下와 御同伴하야 制服을 召하시고 吳竹寮御車가에서 記念撮影을 行하신後 自動車를 타시고 午前七時五十分 吳竹寮御發 學習院에 行啓하시엿다 一年南組에 御編入되신 順宮殿下께서는 院長室에서 長屋院長으로부터 敎學의聖訓을 受하시고 다음에入學式及始業式에御參列 擔任한奧山、館兩敎授의 御案內로敎室에入하사 最初의御學友와 함께敎授의 指導를受하시엿다

白首相의出馬에 獨逸政府歡迎
國際經濟會議機運增進

【伯林七日發同盟】伯林政府는반질란드首相이 英佛兩國政府의要請을受諾하야 國際經濟會議의氣運을增進시킬目的으로 獨逸經濟相샤하트博士를 訪問하야 漸次歐洲首腦部와 會談하리라는 報道에 獨逸政府當局도 歡迎의意를表하고잇다 반질란드首相自身이 伯林에出馬하리라고 期待되는데 一方 샤하트經濟相도 이와前後하야 브륫셀府를訪問하고 積極的으로 意見을交換할터인데 이로 獨逸政府當局이 積極的인것은 經濟會議召集案의前途에 不少한 光明을 與하고잇다 그러나 獨逸政府當局으로서는 經濟問題와同時에 이와不可分한 政治問題의 解決도 絕對必要하다고함으로 샤하트博士와 반질란드首相과의 會見에 잇서 미리獨逸政府의 希望을 忌憚업시開陳하리라고觀測된다 獨逸政府의見解로 解釋되는것은 左와如하다

一、獨逸政府는 國際經濟會議에 參加하기를 不吝하나 資源再分配 植民地問題 輸出增進 外國爲替問題의 解決이 期待할수업스면 會議는 無意味하다
一、同時에 어너種類의 政治問題의解決 特히 賠償金負擔國이受한 損害를 部分的으로라도 補償되기를 絕對必要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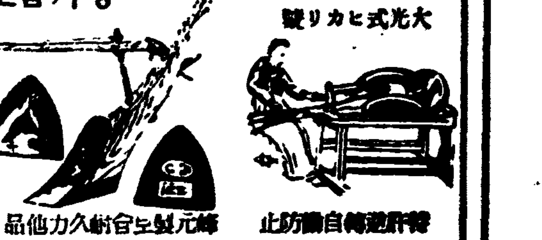
西班牙叛軍飛行機 英驅逐艦에投彈
伊太利兵一萬카디스港上陸
監視案實施後新事態

【倫敦七日發同盟】西班牙叛軍飛行機一臺는 六日午後아리칸데近海를 游弋中의 英國驅逐艦 가렌드號에 爆彈을投下하엿다 多幸히命中은 되지안헛스나 政府는 右不法事件에對하야 抗議키爲하야 驅逐艦 가란드號를 마호르카島팔마港에向하라는 訓電을發하는同時에 사라망카市의叛軍當局에 對하여도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倫敦七日發同盟】倫敦駐剳西班牙大使館은 七日午後聲明書를 發表하야 三月二十二、二十三、二十四 三日間에 亘하야 伊太利兵一萬이카디스港에 上陸하엿다 이것은三月六日監視案實施後의 新事態이다

王寵惠氏就任後에 最初의日中會談
川越大使國交調整原則開陳

【南京七日發同盟】川越大使는七日午後四時 淸水通譯官을 帶同하고 外交部에 王寵惠氏를 訪問하고 約一時間會談하엿다 今日의會見은 日中關係調整에對하야 王寵惠氏就任後 最初의正式意見交換으로 雙方이모다 原則的立場을開陳하엿슬것으로 具體的問題에는 抵觸치안헛다 川越大使는 今後더욱 隨時會見하고 日中關係打開에對하야 協議를進行할 方針인데 佐藤外相의 相對로 對中外交에 新生面을展開하리라고期待되는 會見後 川越大使는 會談內容에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最初의 意見交換이만큼 原則論을行하여 何等內容잇는 談話를 한것은 아니다 北中問題 不平等條約撤廢問題는 나오지안헛다 中國側에서는 經濟使節團의 歸國後의 日本國內에잇서 反響及 其効果에 相當히 期待하고잇는 模樣이다 許世英氏의 歸任은 正式決定되엿스므로 四月末或은五月上旬에東京에 歸任할것으로豫定되엿다

本社特許製調製機 大光式ヒカリ號

쟁기보급합
大光式ヒカリ號 製粉機 大光式ヒカリ號 製粉機 大光式ヒカリ號 旋風機
日本一ホ・ルペシヨ農具其他農具一般製作及御商
京城府義州通二丁目太田ビル內
大光農機具製作所
電話本局六四六七番 振替口座京城九〇五番
朝鮮總販賣元

就職의最近道 是乃滿洲에서活躍할測量技士養成 附設 滿洲語專門科
滿蒙測量學院 安東縣官電街十三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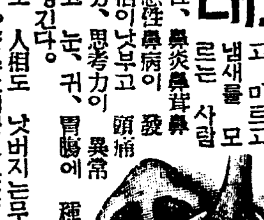
就任謝禮 扶安郡幸安面長 李昉善

音樂 四月號廿錢 朝報案內

店舖住宅

迎接係

朝鮮總督府看守(朝鮮人)募集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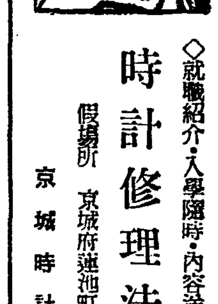
코 흘리고 메는대
Nozensei 正當한治療法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京城高等簿記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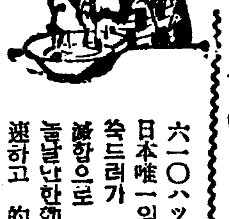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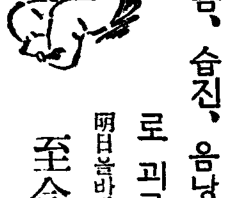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죽은깨 여드름
蔘補丹 光澤油 本舖 日光堂藥品部

朝鮮、支那、文獻書籍 高價買入
內外圖書雜誌 中小敎科書 文具學用品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金星書院


時計修理法敎授
京城時計修理院

東新學校中學部生徒募集

가려웁고 쑤시는듯압흔 皮膚病에 꼭쓰지아니하면 아니될
專賣特許 무도 六一〇ハップ
六一〇ハップ는웨잘듯는가


음、무좀、습진、음낭습진가는 皮膚病으로괴로워하는분은、
明日을바라지말고 至今곳試用하시라

▲六一〇ハップ의主治効能
皮膚病、冷症、婦人病、神經痛、胃腸病、動脈硬化、痔疾、凍傷
醫界의泰斗
婦人科 川地醫學博士御推奬
皮膚科 長谷川醫學博士御推奬
內科 纐纈醫學博士御推奬
小兒科 森醫學博士御推奬
價藥 三十五錢。一圓。二圓三十錢。三圓五十錢。六圓。
(六一〇ハップ는各藥店에잇습)
名古屋市 發賣元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五個年計畫遂行에 鐵道局增員二萬名

今年度增員만四千六百餘名

금춘부터 착수하야 오는십칠년도에 완성될철도국의 개량계획 기타철도오개년계획에 의하야 증원되는 국원은 참사(參事) 부참사(副參事) 기사(技師)등 고등관으로부터 서기(書記) 기수(技手) 철도수(鐵道手)등판임관 그원을합하면 전부약이만명에 달하는데 이중에 십이년도것은 ▲參事 五 ▲技師 二十三(內勅任一) ▲副參事 九 ▲書記 二〇六 ▲技手 二五〇 사백구십삼명에 철도수등을 합하면 사천륙백팔십칠명으로 결정되엿고 그예산도 이번의회에 통과되엿슴으로 방금법제국(法制局)에서 관제개정의 심의를밟히하는중임으로 느저도 오는六월에는 개정관제가 공포될모양이다 철도국에서는 이래증원에 의하야 기구개혁준비에 분망중인데 관제개정과 칠월부터현기과(現業課)와 조사과(調査課) 두과를신설하고 신과장두명중에는 칙임기사한명이임명될터이다

蘇聯軍事探偵 被疑者二名送局

五日咸興檢事局으로

【咸興】 작년구월 함남경찰에서 직접함흥(咸興)신흥(新興)방면에 출동하야 청년십여명을 검거하고 엄중취조하든 소위적로(赤露) 군사(軍事)『스파이』사건은 그후에 함흥(咸興)경찰서에류치하야노코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고잇든바 혐의가 박약한자는전부석방하고 리한빈(李翰彬)(二)과 리돈호(李敦鎬)의두명만오일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하얏다 (사진상은 리한빈 하는리돈호)

江西讀書會事件 七日公判에廻付

月末頃第一回公判

【鎭南浦】 작년시월이래 평남강서경찰서에 검거되여 엄중한 취조를 마치고 진남포검사분국으로 송치된 독서회(讀書會)사건관계자 김봉수 엄호숙(嚴鎬淑)외 네명은 저간 정상(井上)검사가 취조한결과 지난칠일 기소되여 공판에회부하기로되엿다하며이달이십삼사일경제일회공판이개정될모양이라고하다

就職詐欺

수일전 시내 평하정(平河町)칠오번지 철도국렬차수(鐵道局列車手)리세영(李世榮)이가 부산(釜山)을 떠나서울오는렬차에 근무중 이등실손님가운데 금(金)줄의 해원복(海員服)을 입고 나이도 약사십세가량되여 보이며 몸맵시도 그럴듯한친구가 대구부남산정(大邱府南山町)박인수(朴仁壽)라는 뎍함을 내노흐면서 가장친절한듯이나는 현재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사이베리아』환의 기관장(機關長)으로 매월삼백오십원의수입이잇서 그회사에서도 매우 신임을밧고 잇는터에 이번 서울구경을 떠낫스나 이곳은생내 초면이어서 누구나 친절한 사람의 안내를 엇고시픈데하면 서하급근로자 리세영의 마음을 가진매력잇는말로 그를낙구어 그의소개로 시내 관철정(貫鐵町)모려관에 유숙하고는 일본우선회사에 취직을 주선하여준다고하야 그에게서 현금일원을사취한것을 비롯하야 그려관에 함께 묵고잇는 시곡조님김모(金某)에게서도 이수단으로일백오십원가량의 현금을 사취한 사실이 발각되여 시내 종로서에서는 방금그범인의행방을엄중수사중이라고한다

風水害復舊費 四百五十萬圓計 上

작년의풍수해에대한 재해복구비는십이, 삼량년도에 사백오십만원을계상하얏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直轄河川 百五十萬圓
十二年度 八十萬圓
十三年度 七十萬圓
▲一般道路補助 三百萬圓
十二年度 百七十五萬圓
十三年度 百二十五萬圓

그리고십일년도의 구십만원을가산하면 총게오백사십만원을재해복구비로 지출하는셈이다

自轉車에衝突負傷

칠일오후 네시삼십분쯤 부내 청엽정(靑葉町)팔십번지아페서 청엽정(靑葉町)팔십번지의십칠호에사는 전정옥(全丁玉)(四)이가 차도를 지나갈때 동정팔십번지에사는 김성록(金成祿)(二一)이가 자전거를타고 질주하다가 충돌되여 전정옥이가 너머지며 얼굴에 전치오일간의 부상을바덧다한다

少婦出奔

부내 청엽정(靑葉町)일정목 구십사번지에사는 리규청의처 리근춘(李根春)(二)은 작년사월에 결혼하야 평화스러운가정을 이루고 사럿다는데 누구의 유인인지 지난륙일오후열두시쯤 집을나가다하야 그수사원이 팔일오전열시에 산서에 드러왓다

孫義庵出世記念式

시내경운정에잇는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금팔일이동교제삼세교조손의암(孫義庵)의 출세한제칠십회 출세기념일임으로 오전십일시동교당안에서, 리종린(李鍾麟)씨집례하에 김경함(金璟咸)씨의 기렴사가 잇슨후동교소년부합창대의 기렴가합창으로 성대히 식을거행하고 동십이시에 폐식하엿다고한다

商工大運動 準備委員會

規定은追後發表

신록(新綠)이 풋게물드린 오월의 첫공일인 이일오전여덟시부터 시내장충단공원(獎忠壇公園)운동장에서 경성 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의 변공성사(午中商業)인 제일회경성상공대운동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이대회의 만반의준비를 위하야 작칠일오후일곱시부터 시내식도원에 황재창(黃在龍)김규면(金奎冕)김성진(金成業)김영구(金永逑)최재환(崔在煥)김룡구(金龍九)리순재(李舜宰)리정상(李正相)마룡옥(馬龍玉)곽석근(郭奭根)서정억(徐廷檍)고봉오(高鳳梧)제씨가 참석한가운데제일차준비위원회를열고대회경기종목(競技種目)과, 대회부서(大會部署)등을 토의한후동아홍시경에산회하엿다는데 대회규정과 기타상세한것은 추후결정발표하기로되엿다한다

思想、訓育、保健等 指導方針討議

【八帝大學生課長會議內容】

전국제국대학(帝大)학생과장회는 지난사일부터 사일동안경성제국대학본부에서 개최하엿는데 전중문부성 사상과장(田中文部省思想課長)고미총독부 학무과장(高尾總督府學務課長)립석하에 동경제대(東京帝大)경도제대(京都帝大)동북제대(東北帝大)구주제대(九州帝大)북해도제대(北海道帝大)대판제대(大阪帝大)대북(臺北帝大)경성제대(京城帝大)등 팔개대학학생과장이 모혀서장래 국가지도계급에 서잇슬 대학생을 어떠케 지도훈육하여야 할것인가하는 근본방침을협의하야 성안을 어든후 칠일오후에 원만산회하얏는데 그협의내용인즉 사상관계, 훈육지도관계보건관계등인데 사상관계로는최근사회정세가 대학생에게 주는영향을 검토하야 이에대한 지도방침과 좌경(左傾)과 우경(右傾)학생의 처치도방침을 협의하얏스며 훈육관계로서는 인격과 도덕을 함양하야 종교적정조(情操)를 고조함에 어떠한방법으로 할것인가 또 보건관계로는 최근 대학생의 체격이대단히 나저지고 호흡기(呼吸器)병으로 폐결핵에까지 이르는일이 만흠으로 이것은 각대학이 공동으로 보건기관을 설치하고 대학생보건문제에 만전을기하자는것등이다

京城基督會館에 乙種商業學校

三個年修了의夜學 六十名新入生募集

부내 장곡천정(長谷川町)에잇는 경성기독교청년회학교(京城基督敎青年會學校)는 야간에 영어를교수하야 이방면에 상당히 오랜력사를가지고잇섯는데 일반사회의 경향이실업교육을 요구하고잇는데 비추어 일종실업학교를새로 병설하려고 그인가신청을 하엿는바 요사히인가가 나왓슴으로 위선사월중에 수업을 개시하게되리라는데 신설상업과는 삼개년수료의 을종상업정도학교로 신입생 륙십명을 모집하게된다는데 원서접수의마감은 사월십오일까지라고한다

神風號快翔 카라치에到着

【카라치七日發同盟】 조일신문사의 신풍호는 인도표준시간 칠일오전삼시삼십오분 (日本時間七日午後三時五分)『칼카타』를 출발 ... 『칼카타』에서 류를 마친후 다시비행을 계속하야 오후일곱시 (日本時間七日午後十時五十分)무사히『카라치』에 도착하얏는데 이곳에서하로밤쉬이기로되엿다

「빠스라」向發

【카라치八日發同盟】 조일신문사의 신풍호는 인도표준시간 팔일오전다섯시 (日本時間午前九時十五分)에 카라치를 출발하야 『빠스라』로향하얏다

藥效第一 淋疾 帶下 特効 안지고노깅 國際新藥研究所 京城府鍾路六丁目

"다이나마이트"爆發로 坑夫三名重輕傷

富寧大湖金山의惨事

【羅南】 지난사일오전열시쯤 함북부령군 관해면사진동(富寧郡觀海面寺津洞)에잇는 대호금산(大湖金山)항내(坑內)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야 천지를 진동시키는 음향과가티 굴안에서작업하든 세사람의 광부는 불벼락을마저 각각중경상을입은 일이잇섯다 피해자는 동면조영동(所洞)에사는 공부감독(工夫監督)김만수(金萬洙)(二)공부김주호(金周鎬)(二)공부 박명관(朴明寬)(二)인데 의세사람으로 작업용의 화약(火藥)삼십개를 나르다가 그중한개를 화로에떠러트린것이 이가튼 참변을 이르켯다한다 다행하게도생명에는별연고업고 김만수는전치삼주일개월(全治一個月) 김주호는 전치삼주일의 화상을보고 박명관은 경상을바덧다 이급보를 바든소관주재소에서는 현장에 급행하야 두명의중상자에 즉시응급처치를 한다음 라남도립의원(羅南道立醫院)에수용하고 치료시키는중이라한다

列車殺人

칠일오후 연시십분에 대전(大田)을떠나 목포(木浦)로 가든제삼백오렬차가 임성리(任城里)목포(木浦)사이를 진행하든중 남자한명이 렬차아래 뛰여드러 허리가 끈어저서 즉사하엿다한다 신분과원인은 조사중이라한다

스포ー츠

卓球大會

申請은明日限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 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十回 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硬式도兼行)는 四月十日午後一時부터 鍾路靑年會運動室에서 擧行한다함은 旣報한바와가거니와 參加希望者의 申請도 明九日까지 마감하기로되엿는데 벌서부터 盛況을豫期하고잇는바 이날大會役員은다음과갓다

◇大會任員

▲會長 尹致昊 ▲副會長 具滋玉 ▲委員長 申公淑 ▲本部委員 玄東完 徐相天 崔在煥 李丙三 高鳳梧 金應集 桂炳鎬 洪宗璟 張權 ▲審判委員 田盛鎬 曹明煥 李珠煥 金鉉玉 朴在輸 金翊鎬 鄭安永 李德煥 尹同燮 李東德 鄭鎭烈 尹斗植 元貞淳 洪允基 具滋鳳 文錫璜 崔根善 ▲進行委員 金明德 金德銀 李惠澤 金炯德 ▲記錄委員 石完鎭 金亨琢 尹寬永 秦蕃 徐廷植 金谷喆 ▲接待委員 高在元 張鍊敦 李性宰

軟式庭球

올림픽參加運動

軟式庭球는 日本內地와 朝鮮에서 盛行하는 特技인데 三年後에열릴 東京올림픽大會에『엑스히비슌』으로 登場시키고저朝鮮軟式庭球聯盟에서는 參加運動을開始할터이라는데 同聯盟副會長堀氏는 昨七日밤에열린 記者團招待宴席上에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朝鮮의 軟式庭球는 年復年進境을보이여 이미四年동안을連다라 全日本의 覇權을保持하고 잇는데 東京올림픽에는軟式庭球를 世界的으로 紹介하기위하야 模範競技로서參加할意圖를품고 올림픽組織委員會에猛運動을開始할 作定이다

春期럭비十五日戰績

朝鮮럭비ー協會主催의 春期戰第十五日의 朝鐵對京商戰은 七日午後四時半부터 龍山球場에서 朝鐵軍先蹴으로 開始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朝鐵軍이 得勝하엿다한다

朝鐵 48 (31 17 … 0 3) 3 京商

天氣豫報

概況 두개의弱한 低氣壓은 九州南海上에잇서서 東으로徐行하고잇다 昨日 日本海北部에잇든 優勢한低氣壓은 千島方面으로 가버렷다 高氣壓은 滿蒙에 七六七미리, 小笠原島附近海上에 七六四미리를보이고 北朝鮮의氣壓은高다 滿洲朝鮮은 大槪흐리나 國境은晴 日本內地는 關東地方은晴 其他는曇 南九州에는 少雨가잇다

豫報 京城附近과 京畿道全區는 今夜와明日도 晴曇不定

昨日最高 十三度二
同最低 四度四
今朝最低 四度一
今日正午 十三度三

白象을先頭로 市內에花祭行列

【佛陀降誕記念日의盛況】

사월초파일은 부처가 탄생한 날임을, 기념하기위하야 경성의『화제』(花祭)행렬(行列)은 약일천이백명의 참가로 그날오후두시반부터 시내『빠고다』공원압과 조선은행압 두곳을 각기『코끼리』를 선두에 길다란행렬을지어가지고 빠고다공원을 떠난행렬은 종로통, 동대문을 지나서 조선은행압을 떠난일행은 본정통(本町通)을 지나서 모다 오후네시반까지 장충단공원식장(式場)에 모이여그곳에서 이날의 식을 거행하엿는데 이따뜻한 봄바람에 장충단공원서는 이행렬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수천명의 관중으로 대성관을 보이엿다고한다 (사진은행렬망경)

씨ー즌劈頭의豪華版

全日本페더級에 王者로君臨!

본사후원으로향토에서일전 今日매내저와함께京城驛到着

百戰鍊磨의強拳

조선권투계(拳鬪界)에 폭발적인기를이끌게할래보! 전일본권투계의 인기를독차지하고잇는 현해남(玄海男)(二)군은『로스안젤스』에잇는유명한권투『푸로모터』『콜덱스』씨초빙을바더미국(米國)에원정하기로되엿는바 이보다먼저 향토인사들에게고별인사를겸하야 세련된기술을경성무대에서발휘코저 돌연이금팔일오후한시 삼십오분 경성역착아까즈기로입경하엿다 현군은 제주도(濟州島)출생으로 사년전에 일본내지에건너가 권투기술을 련마하야 그의비범한재능은 드디여 전일본빤탐급과 페더ー급의선수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러 명실아울러사계의왕자로서군림하엿스는데 군은 생후 제주도이북의 조선본토를밟어보지못한터이라 이번길이 조선사람으로서 처음드디게되여 감회도 깁다한다 이리하야 현군을마지한 경성권투계는아연활기를띄우고잇는데 이번 새로히 창립된조선푸로페(프로)널권투협회와 아세아권투회 공동주최로 본사의후원을바더 오는십사일오후일곱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도미송별권투전(渡米送別拳鬪戰)을 거행하게되얏다 이권투전이야말로 금씨ー즌벽두를 화려하게장식할 호화판으로만도의시청은 오로지 이에총집중되고잇스며 이날현군의 대권자는 동경에 체재중인 비률빈(比律賓)출신을 백전련마의강권(強拳)을 초빙할터인데 상세는 추후발표하기로되엿다

玄海男君談

처음으로 이땅을밟는 현해남(玄海男)군은 매네저이등(伊藤)씨와함께 주최측과 각신문사 운동부관계자들의 출영리에 팔일오후 한시삼십분에 입경하엿는데 역두에서 주최측으로부터 꼿다발을증정한후 시내삼각정중앙(中央)호텔에 행리를풀엇다 현군은 출영한기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한다

생전처음으로 보고십든 남대문을보니 더욱감개무량합니다 미국에는오월이십일 출발할터인데 원정을압두고 향토여러분을 뵈옵고갈 작정으로 온것입니다 이번 송별전에는 나의 실력을충분히 발휘하야참된권투를 보여들일 결심입니다

(사진은 입경한 현군일행)

玄海男渡米送別拳鬪戰

滿洲로進出될 限地開業醫

龜西衛生課長 滿洲出張收穫

총독부 서귀위생과장(西龜衛生課長)은 얼마전에 만주(滿洲)에 출장하야 의료기관의 시설상황을 시찰하고 칠일 귀임하얏는데 동과장은 이번에 만주국정부와 절충하야 조선의사시험에 합격한 한지개업의(限地開業醫)와약제사시험에 합격한 한지개업약제사가 만주각지에가서도 개업할수잇도록 교섭한결과 만주국측에서도 추후허락하게 하엿다한다

清津飛行場에 使用禁止令

三往復非常스텝

【淸津】 해빙기(解氷期)를당하야 지반(地盤)의 연도(軟度)가 점차 심하여간다는리유로 청진비행장(淸津飛行場)에 사용금지령(使用禁止令)이 나렷다 륙일부터십일동안의 정지를맛낫슴으로 전후 세왕복의 항공이 비상『스텝』을당하게되엿다

醫藥界의新消息!!

健康의增進과病魔의驅逐에完全한捷經은醫藥界의一大革新인東西複方의大東醫藥研究所製品을求하시라

補氣補血補腎 健康長壽劑 **氣血強壯丸** 健胃健腦良劑

本劑는 植物性『홀몬』을 主로한 補藥이니 漢方의 延年益壽劑와 長生不老劑에 特殊한 補氣補血補腎健胃健腦劑를加하고 自家獨特의 五行藥을合하야 此를 에키쓰로化한 複方補藥이니 其主要成分은 動物性『홀몬』과 植物性『갈슘』等의 綜合的強壯劑이라 男女老幼를勿論하고 此藥을服用하시면 氣血이旺盛하시고 精力이 增進하시와 每事에 所願成就하십니다 本劑는 補藥之王임으로 親知에게 선사品으로도 第一貴重品이됩니다 病的으로는 氣血不足, 腎氣不足, 神經衰弱, 消化不良에 特効가 有하고 小兒에게는 瘦削貧血結核體質發育不全等에 第一神効합니다.

肺病專門藥 肺病根治劑 **補肺強壯丸** 老衰予防劑

肺病은 東西醫가 여러가지方法 여러가지藥品으로 苦心治療하야 보앗스나 잘退治되지 아니함으로 東西醫의 一人인 大東醫院長은 漢方의 漢方處方의 自家遺傳秘方不足症藥을 繹演的歸納的으로 東西醫藥을 對照研究十餘年에 百%肺病特効藥을 發見한것이라 本劑는 肺病專門藥으로 漢方의 神秘와 洋藥의 合理를 兼備한 補藥이니 漢方으로는 五行二氣三才의 補氣補血補腎劑를 엑키쓰로化하고 洋藥으로는 燐, 갈슘劑를 合理的으로 配合하야 此의 特殊한 補肺殺菌劑를 綜合한 東西複方의 一大補藥입니다. 本劑는 男女老幼를 勿論하고 咳嗽, 痰喘息에 有効하며 中年人의 氣血衰退를 豫防키爲하야 常服할 補藥입니다.

子宮病根治 婦人의灵藥 **調經補胎丸** 妊娠催進劑

婦人病의 半數以上은 子宮病이라 이病으로 因하야 神經衰弱, 消化不良, 氣血不足, 赤白帶下, 頭痛, 腹痛, 腰痛, 肢節痛, 手足厥冷, 全身倦怠等 여러가지症狀이 생기여 無限한 苦痛을보며 심지어 子女生産을못하거나 나타가도못낫는일이 만으며 一生을苦痛과 怨恨으로 지내게됨이 만은지라 그러나 漢藥이나 洋藥이나 或은手術治療라도 잘根治되지아니하는지라 本研究所에서는 社會健康上으로나 人類生殖上으로나 가장重大視하야 十二年間東西醫藥을對照研究한結果 漢藥과洋藥을合劑한 子宮根治藥을 發見한것이니 本劑는子宮病을 根治하는同時에 氣血이조와지고 元氣가튼튼하여저서 百發百中으로 孕胎하게되는婦人仙藥이니 子宮病으로苦生하시는분과 生産하기願하시는분은 곳服用하시여 보시옵소서 無病하신婦人도 本劑를服用하시면 氣血이조와지고 元氣가튼튼하여저서 大端히졂어집니다.

藥代ー十五日分十圓、三十二日分二十圓式 (先金注文은送料本所負擔) 本研究所內大東醫院으로오시면 診察은無料로하야들입니다

◇本所員이 出張中 官公吏에 限하야 月賦販賣를 斷行하오니 만이 利用하야주심을 伏望하나이다

京城府積善町九一番地

大東醫藥研究所

振替京城五四四四番

(附設) 大東醫院 小兒科 內科 婦人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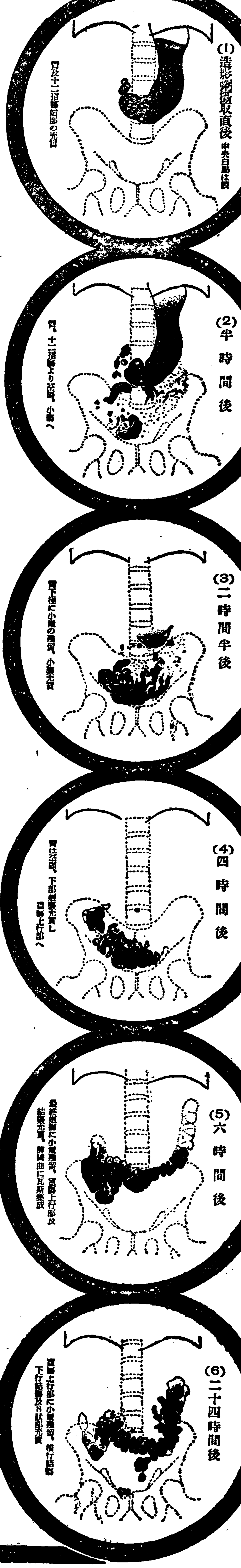
診察無料◇健康相談

肺病子宮病責任治療

◇駐在所員募集

本所出張員이貴地滯在中地方駐在員을募集하오니有意하신분은出張員과直接問議하야주심을

造影劑胃腸通過のレントゲン像



弱った胃腸の——消化を促進する二つの方法

消化酵素の補給

胃腸病은慢性이되면은、 가슴아리、 噯氣、惡心等外에胃部의停滯、壓重膨滿함을알게되여그때문에、食慾이줄고泄瀉、腹痛이頻發하든지하는대이러한때에 于先試驗할것은 消化劑의 服用即消化酵素의補給이아닐가한다그것도 그럴것이酵素는胃腸의消化力을돕고 消化液의分泌不足을도읍는대 補助的이며 一時的인때문에習慣性이되기쉬운것은못쓴다、또한 지아스타ㅣ제、아미라ㅣ제와가튼主로 澱粉을 消化分解하는것、리파제、페푸신等과가튼蛋白質作用을하는것、스테아푸신等 脂肪分解酵素等그種類는다가튼것이아님으로서 모든食物을偏頗엽시消化식힌다는것은困難한일이다。

또한胃腸의 消化가이러한消化、酵素의化學的作用에만 依하는것이아니고 胃腸의收縮運動에依한 混和蠕動運動에依한 運搬의機械的作用에도 因함을살펴보면 消化酵素의 補給만으로도充分한効果를 어들수업는것도 當然할것이아닌가。

消化機能の賦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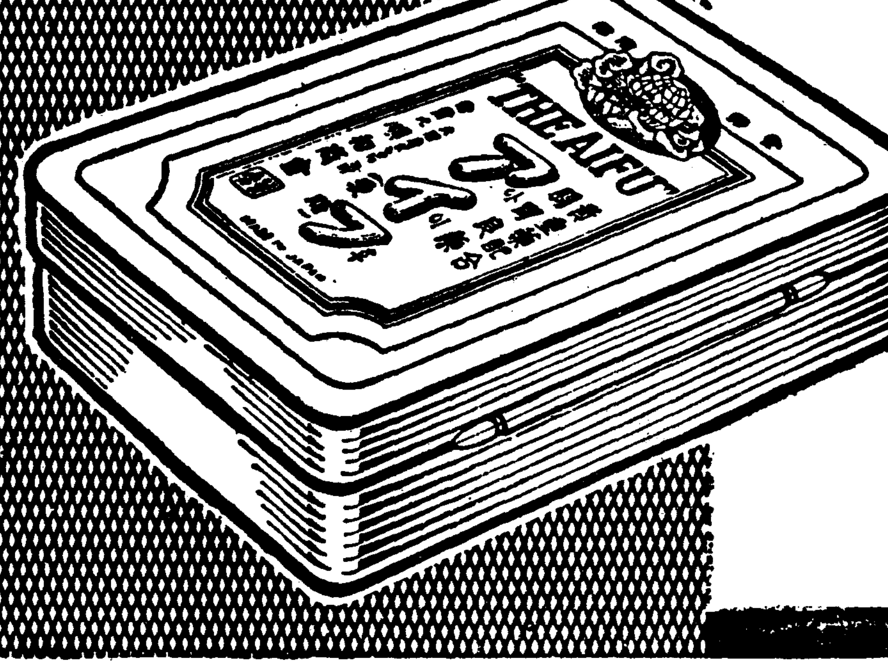
그래서둘재로 生覺되는것이 消化機能의賦活이다。 大體胃內容의排出時間에뚜렷한影響을주는것은 幽門의開閉、蠕動의程度、胃의緊張力、酸度等인대胃酸過多또는胃液分泌過多인때는 蠕動運動이 亢進하는고로 內容의 排出은迅速해야할터인데도反對로 遲延하는일은 幽門閉鎖가反射的으로 增强하는結果라고말한다。

그럼으로慢性胃腸病의胃部停滯、壓重、膨滿感等도 消化液의分泌不足에 依하는것이아니고胃腸粘膜의炎症、糜爛、胃神經의興奮、胃腸筋肉의 弛緩等器質的인 障碍에起因되는것이만타고 生覺지안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때 故然히酵素劑等을濫用하는것보다 이러한 器質的損傷을防護治療하야 胃腸自身의 消化力을昂騰식힘이가장重要하다。

그러케하는데는 무엇보다도病原、對症二重治療作用을가진 治療藥아이후가 効果的이니主藥이胃腸內壁의瘡面에附着하야炎症을곳치고 粘膜을强化하며 弛緩을緊縮하야分泌나蠕動異常을整調하는同時에腸管內의 有毒物質을吸着하야 體外로排泄하는等廣汎한病原治療를營爲하는고로가슴아리、噯氣、惡心、胃痛、腹痛、泄瀉、便秘、嘔吐、消化不良、食慾不振等諸症狀을消退하야胃腸機能이自然히活潑하게된다

慢性胃腸病にはアイフ(아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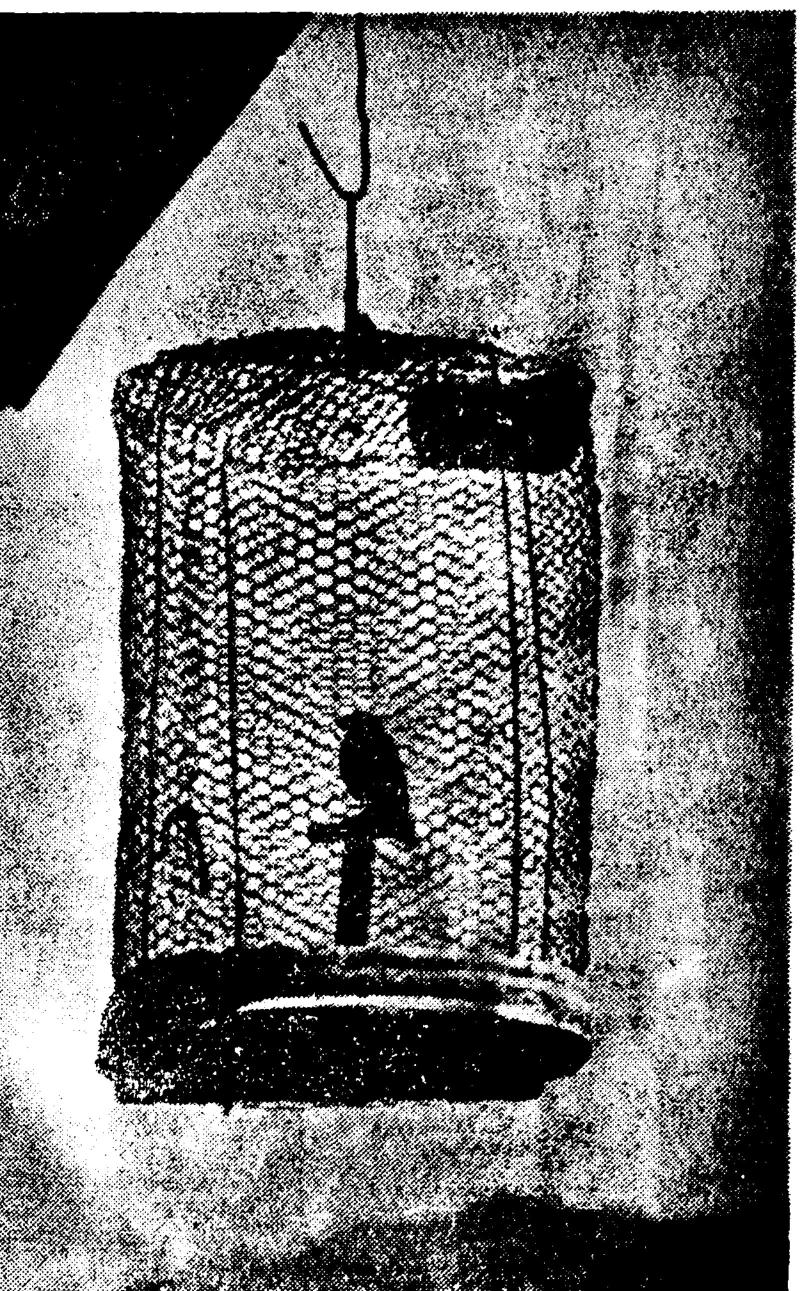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胃症には特製アイフ	
便秘症には加減アイフ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다◀

大阪市東區清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그리운창공◆◆◆

구실때문에 꺼칠한얼굴
화장을잘해서가리십시요

안악네가 달마다 구실이 잇슬때는 아모래도 얼골이 축이 가게됩니다。흔은 자꾸 상긔가 되거나 또흔은 그반대로 몹시 혈색이 조치못하거나 하야 무어보다도 살ㅅ가죽이 거칠어지고 눈ㅅ섭이 일어서고 분이잘 먹지를 안습니다。만일 화장을 아니하면 아조 유표하야 누구에나 눈치를채게 되는데 그러타고 화장을하려하면 또곤란합니다。그러케곤란한때 화장을잘 하야눈치를 채게 되지 안하야만 수완이 잇는 안악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한 글분이나 진분은 애초부터 손도대지 말고될 드·크림을 끌고로 발러야 합니다。그런다음 건강색(健康色)의 [베니]를 바르고 눈ㅅ섭을 손까락으로 쓰다듬어 평형(平形)을 맨들고 머리도 좀 반드르하게 손질해 두어야 합니다。

얼골도 아모러케나 해두고머리털을 부수수하게 하다가는 고만 눈치를 채게되고 맙니다 그것은 안악네의 수치입니다。

학교에 들어간뒤
건강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
두서너달은몸무게도늘지안허
◇……가정에서주의할점

학교에 처음으로 들어 간다는것은 애기네들의 생활에잇서 크나 큰 변동입니다。이때까지 아모런 구속도 밧지 안코 웅석둥이로 지내다가 시간을 마치어 학교에도 가야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여러 동무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애기네의 건강이라든지 발육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안 할려야 안 할수가 업시됩니다。본래 애기네의 건강에는 첫재 음식물, 둘재 운동, 셋재 신선한 공기, 넷재 해볏의 네가지 큰 조건이 잇는데 집안에서 놀때와 학교에 들어 간 뒤와는 그 네가지에도 솜 차이가 업슬수 업습니다。

대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두서너달동안은 애기네들이 키는 커도 몸무게는 별로 늘지를 안습니다。그래서 무슨 병으로해서 그런것이나 아닌가고 걱정하는 집안도 만흔신데 아모거칫업시 무럭무럭 자라든 애기가 급작스럽이 여러사람에게 시달리고 또종일의 자에 걸어안저서 공부를하게 됨으로 그만큼 여향을 밧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위선 무어보담도 애기네는 잠시 가만히 안잇고 그저 뛰고 날치고 움죽여야삽니다 그런데 꼼짝못하고 의자에 안젓사니 그고생이제 마다 여간이 아닐것은 사실입니다。그점을 리해해주어야합니다。그래서 그런생활에 길이들도록 집안에서도 잘 인도 해 주어야합니다。

×

입학하는데 딸아서 제일 부족한것은 운동입니다。학교에서는 극히 적은 시간 이외에 들에 나가서 뛰지 못하고 교실에 늘 안젓게 되니까 암만해도 운동은 부족하다고 볼수업시됩니다。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뒤 엘당은 자유로 운동을 시킬 것은 물론이요 노는 날 가튼때 어른이 다리고산보나 하이킹을 나가십시요。공연이 복습 복습해서 붓들어 안치고서 집에 온뒤에까지 운동을 못하도록은 마십시요。복습은 일년생으로서 그저 하로 一、二시간쯤이라도 훌륭합니다。나제 잠간 복습시키고 또 밤에는 일즉 재워야 합니다。그만때의 밤공부는 눈을 버립니다。근시안이 요사이 만흔데는 그 관게가 적지안습니다。그리고 몸을 끄고 잠을 푸근히 재워야 합니다。열시간 내지 열한 시간은 재워야 할 필요가 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식물입니다。위선은 변또를 가지고 다니게 되지도 안습니다만은 차차 변또를 싸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대체로 애기네의 변또는 분량도 적고 반찬 가지수도 적습니다。그래서 애기네발육에 필요한 담백질 칼슘 비타민가튼것이 충분히 들어잇나고는 생각되지안습니다。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뿌게서두르느라고 아침은 만히 못 먹고 점심을 만히 먹게 될것인데 그러케 해서야 쓰겟습니까?좀더 변또도코 게 하는듯시 반찬도 변또 반찬식으로 말고 좀 개량할수는 업겟습니까?그뿐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서서 저녁을 먹이실때도 주의하실 필요가 잇습니다。즉맛난음식 조흔음식 이라느니보담 영양분이 충분한것을골라서 반찬으로 맨드러주시는것이 조치 안할까 합니다。

×

그도 그러려니와 교실안에 공기가밧븟이 조흔것도 아니요 또 햇볏이 잘비치는지도 의문입니다。더구나겨울에 난로를 피어노면 더 그럿습니다。그러니까 집에와서 놀리는것은 될수잇는대로 방바게서 놀리십시요 양지바른 마당가튼데가 조흡니다。

일생에한번은겪는 홍역에대하야
대단찬흔것이나병발증이겁나

㊦ 府民病院小兒科長 李聖鳳

그러고 몬저말한 발진은 얼굴 외에 점점아래로 가슴 배 사지에퍼저 하로이틀새에 그극점에달하면 다시수일경과중에 발생한 순위대로 불근비치 점점 업서지고 그곳이혹 적은낙설이 생기고 그리고 얼마안해서 갈색의 색소반(色素斑)을남기는것이보통입니다。그런대 신열은처음부터 약한주일뒤에는 내리는것이 보통인대 만일더계속되면 흔은병발증이 발생햇슬때입니다。마진의위험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가티 이것은 결코 중한질환은 아닙니다。그러나 전문가 여러분이 대단한주의를하는리유는 그경과중 위험한 병발증이 발생하던지 혹은 마진의경과중 또는뒤에 계발적(繼發的)으로결핵성질환이 발생하는 괴로운경험을흔히 보는때문입니다 이제 병발증에대하야 약간말슴하면섬한기관지염과 기관지폐염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발진기흔은 발진이 거의 업서진뒤에 생깁니다。이병들은 소아가 어릴수록 범하기쉽고 또위험이 대단히 큽니다。벌서 사사세에 달하면 퍽감소됩니다。소아에게잇서서 이병이 발생하면 신열이 내릴시기에도여전히 열이계속하고 호흡곤난 코가벌넉벌넉해집니다。

마진뒤에오는 폐염은실로위험하며온후한 기관지염이던것이하로이틀사이에 전폐염을이르키며그만연되는것이 참으로빠르며치료에잇서서도 말을 잘듯지안습니다。여러분은 마진때에흐름행이되면 마진으로생각하지만 그러치안코 폐염이 대부분입니다。흔은 중이염, 장염이, 유발되여위험한 상태에빠질때가잇습니다 또마진은 일시그소아의체질을 대단히 불량케합니다。그래서 결핵의 소질을가지고 잇는아이던지 흔은백일해등으로 약해진아이가 마진을하면 한칭더 쇠약해저서 흔히 결핵중 즉기관지임파선결핵 결핵성뇌막염 그타여러가지중한것을 이르키므로 주의해야됩니다。

본병의예방 마진은 그리위험하지안흘뿐더러 또그전염이 대단히 용이하기때문에 우리의사도 본병에대한 예방주사를 일반에게 그리 권하지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위험한때가 잇스므로 이러한경우 에는 반드시 예방을 해두는것이 조흡니다 즉 육개월내지 두살이하의 유아 허약아 선병체질(즉 결핵에 걸릴소질을 가진소아)백일해에 걸린소아 선천성 매독 구루병등 에잇서서는 예방에특히 주의해야되며 물론주사해야 됩니다。그런데 이마진의 예방은 전염력이 강대하므로 그류행때에는 대단히 곤난하지만마진환자가 발견될때는 될수잇는데로 속히 격리시켜야됩니다 그것은 발진나기전 즉 우에말슴한 「코푸리크」씨반점이 보이면 마진으로알고 다른아이와 교통을 차단해야됩니다。

공일날에는 들로산으로
그몬저아라둘 "준비할것"

봄날 따뜻한볏을 따라서 가끔가끔 하이킹을 하는것도 위생상으로나 운치로나 조흔일입니다。더구나 이곳 저곳 들리어 그지방의 사람들이 어떠케사나를 한번 친히 보아 두는것도 우리네생활에 의미가 업지안혼일입니다。그러나 안악네의 하이킹은 당일로 돌아오거나 느저도 하로ㅅ밤쯤 자는길이라야 적당합니다 그러고 그중에도하로라면 두시간쯤 거를데、이틀이라면 하로평균 네시간쯤 걸을데라야 알맛습니다。공연히험한 산비탈을 오르나린다든지하로종일 것는다든지 하는것은오히려 해가잇지 리가업습니다。더구나 아모래도 것는일이 귀한 안악네들에게는 그해가 남자보담도 크게됩니다。

◇복 장◇

一、호사를 하고나서는것은 재미업습니다。양장도조코 조선옷도 간단하게 차리고 나서는것이 조흡니다。

二、조선옷에라도 모자를 준비해가지고 가는것이 조흡니다

三、속옷은 땀바지하기 위하야 얇은털것이 조흔데 만일메리야쓰거든 한벌쯤 더가지고나서야 합니다。

三、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휴대물품◇

一、물통、변또、회중전등、석냥、손칼、바늘、실、다친데바를고약、사로메칠、반창고(絆創膏)、탈지면(脫脂綿)、그러고 오만분일의 지도

二、짐의 무게는 열살전후거든 한관쯤、열대살이거든 한관오백몸메쯤、그러고 어른이라도 삼관이상은 안됩니다。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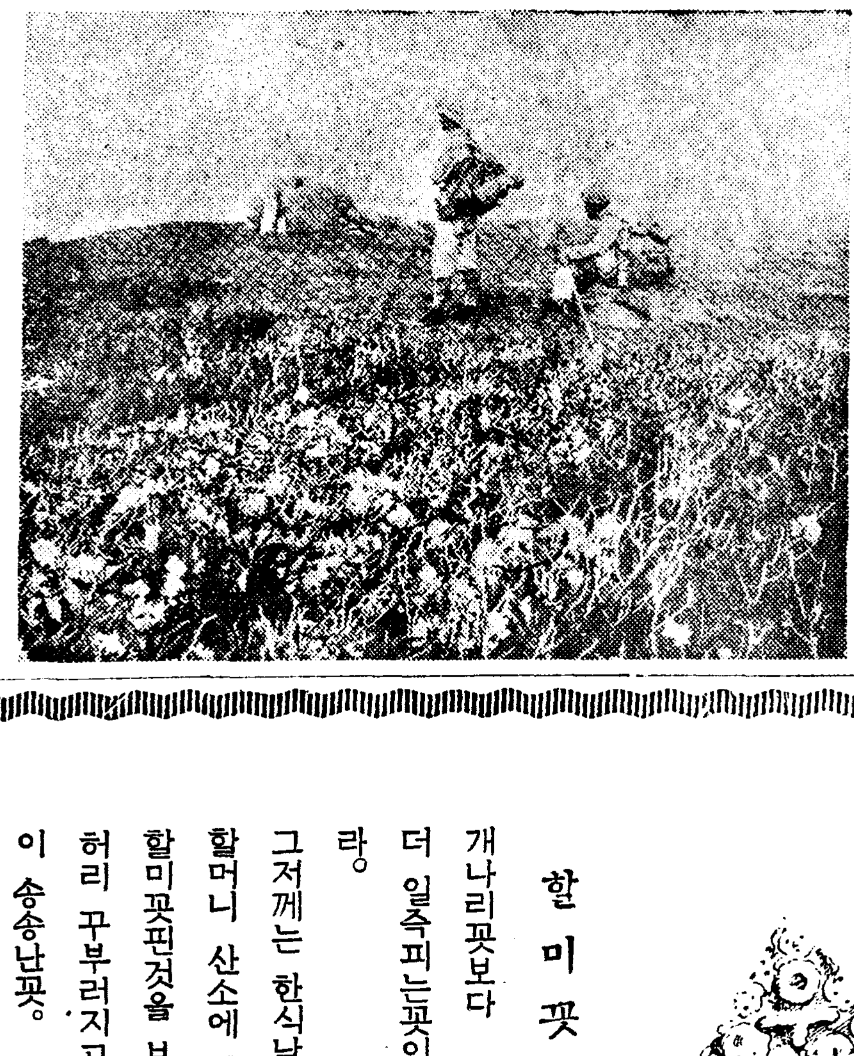
一、몬저 길을 잘알아 가지고 나서서 탈것이 잇나업나 쉴데가잇나 업나등까지 자세히 알아둘일

二、하이·힐가튼것은 금물이요 목구두나 운동화가튼것을 신욕일

三、떠나기 전날밤 알콜과 소금을 석근데다가 백반을 타서 발에발러 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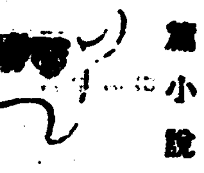
三、구두를 신기전 마른 비누를 발에다가 문질러둘일

四、발이 부르틀때는 비눗물에 끄실러 소독한뒤 살짝 찔러서 물을 뺍니다。그러고부르튼데보담 조금 언저리가 크게사로메칠을 발른뒤 반창고를 발러 둡니다。



長篇小說 찔레꽃 【8】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여섯재의여자(八)

『왜그리서요네? 진정하서요』
하고 정순은 하릴들떼고 잇는 경애의 어깨위에 한팔을 올려노핫다
『진정하서요 네?』
정순은 이크나큰 어린아이를어떠케 달래볼 도리가 업슬가십허 맘속으로 무척애가 키웟다 이윽고 경애는 눈물에 저진얼골을들고
『저그림을 시작할때만 하더래도 무슨모델이 잇슨것은 아니엿서요 내맘속에 그리는리상(理想)의 여인을 만드러보겟다고 붓을 잡엇든것이 코와입모습에 암만해도 실감(實感)이 나지안어서 그대로 여섯달이나 더퍼두엇댓서요 그리든것이 정순씨를 보게되가 내가 어드려고 애쓰든 그얼골과 비슷햇거든요 그래서는

『그러면 지금계속해서 그리시면 되지안켓습니까?』
경애는 고개를 살래살래흔들고
『안되요 안되요 조금전에 그기분이 지금 남아잇지안흡니까요……예술감(藝術感)이랄가 어떤 강렬한 인스피레슌이랄가 망(妄)파가티 지내가는것인데 그것을 붓들지안흐면 안돼요 그다음에오는감정은 먼저어떤든 감정과는 달르니까요』
정순은 알어들엇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여보이고 맘속으로 이깨끗한 예술가의 량심에대하야 머리를 숙엿다。
아래닙술을 잘근잘근씹고 서잇든 경애는 두팔로 굵게지저진자기머리를 안더니
『정순씨 정말야 낫죽겟서 아버지어머니 성화에……나갈다는 식집은 웨부덕부덕가라고 졸르는거냐말야 글세 하로세끼식밥먹여주는것이 그러케와가워서 남이집여서 기어히쪼차내야만 속들이시원할 모양이니……참그러라면 어데던지가서자살이라도해서 이분푸리를할가바……아이 속상해……』
정순은 이런경우에 무어라고대답해야 조홀지몰랏다。거저근심스러운눈이 눈살을 찡호려보이기만하엿다
경애는 정순의 한팔을잡고조곰전에 인형을 만든 방으로드려가며
『글세 생활도달르고 생각도취미도달른 한남자의 운명을웨내가평생토록 간섭을 한단말요……내한몸도 주체해가기가 거북스러운데……』
정순은 경애의 말ㅅ뜻을순간
『민수씨의 운명을 내가간섭을해?』
정순은 이런생각을하자 지금쯤 하숙방 책상머리에안저 무슨책인가 들고안젓슬 민수의절반달님이마전이 눈아페보이는것이다
『이봐 정순씨!』
경애는 소파로가서 벌떡 드러누우며
『두고보아요 난일생을 독신으로 지날터이니……아버지、어머니가 암만 몸이닯라서 야단을 하서도 건무가 내일테니』
『그래도 혹시 그리상적남성이 나타난다면?』
정순은 의미잇게 우서보이고 고개를 까웃하엿다
『홍 리상적남성? 업서요 업서 모다 허수아비들인걸……글세 길바닥에 다니는 사내아이를 못보앗소? 그아편쟁이가튼얼골 축느려진억개……아이보기스러』
『조선사람은 황인종이니까요 호호호』
정순은 짓궂게 이한마듸를하고 경애의 기색을 살펏다
『황인종이거나 백인종이거나 남자란것은 탐심이만코 교만하고 횡포하고 그리고 위선자로만 보이니……첫재 우리아버지부터……』
경애는 억개를 훔칫해보이고
『정순씨 우리혼인하지말고 살아보아요 응? 아모도업는곳에서 나허고 정순씨하고 우리두리를한집에서 살수잇나면 얼마나 조흘가?』
『고맙습니다』
『듯기스러요 그 상섬점원가튼인사는』
하고 경애가 눈을 흘긴다
『호호호 그럼뭐라고 인사를햇스면 조흘가요네?』
『그냥가만잇지 거저즐거운 표정만하고……』
『호호호 즐거운표경!어려운주문인데요 호호호』
『그러케 우서요 소리는내지말고 표정이니까……그인술 그좀 쌉는듯한 위입술을 조곰만들고……그러케 우서요 소리업시 오올치』
『하하하하하』
정순과 경애가 자지러지게 우서때다
『경애야 경애잇니?』
하고 거슬게 문을 열고드려오는 사람은 경애의 아버지 조만호씨다 두처녀는 한거번에교의에서 이러섯다
조씨는 그곳에 뜻하지아니한정순이가 와잇는것을 보자 그의 노기를띈 얼골에서는 감작이참을수업는 미소가 흘러나왓다
『애경애야 어서웅접실로 나오너라 발서부터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잇지안느냐』
『그손님께는 아까 어멈에게얼러보낸말이잇섯는데요 못드르섯서요?』
『얘 여러말말고 어여나가자오날은 기어히 정식으로매저버리자꾸나』
말끄림히 아버지를 치어다보는 경애의눈은 반항과 고집을하는듯이 빗이낫다。
『죽어도 식집은 안갈테니깐요』
쏘아뱃듯이 한마듸하고 뺑도라서서 상우에노인 인형의 머리를 만지는것이다 그손이 바르르떨고잇는것을 정순은 보앗다

할미꽃

개나리꽃보다
더 일즉피는꽃이 잇더
랑。
그저께는 한식날、
할머니 산소에 갓다가
할미꽃핀것을 보앗다。
허리 꾸부러지고 잔털
이 송송난꽃。
(글쓴사람 오수락)

藥先送服藥後代金支拂

藥効가 조와서 代金이 잘 드러왓슴으로

第二回代金全額 後拂販賣를發表함

○엇던補藥이던지 藥効가 다 廣告와가트면 누구던지 다 補藥을쓸것입니다
○그러나 百補丸의效力으로 論하면 廣告보다事實은 霄壤的으로 쓰지못하는더神効한點이 만습니다
○그래도 間或廣告와가튼지 안가튼지 疑心하는 사람도잇슴으로 本社는 藥効를 一層더 確證키爲하야 昨年이때에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한結果 後拂注文이多大하야 本社는 累試累驗한 百補丸의效力을 絕對自信하고 多數人士에게 藥을酬應하엿든바 果然藥効가조타고 그代金이참잘드러오며 感謝狀이踏至함으로 百補丸은男女老少 누구에게던지 잘마저서 大神効를보는참名藥이라는自信이 더욱더욱 確固하게되엿슴니다
○그럼으로 第二回 代金全額後拂販賣를 欣然히發表하나이다
○百補丸의效力이 事實로 조타는것은 이로써確證되엿슴니다
(第二回도 亦是一萬人限이오니 下記注文法及規定參照하시요)

補腎·補陽·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倍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의效力은 이러케 굉장합니다

누구나칭찬하는百補丸의大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아프고 四肢가勞困한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체증 속병 등으로고생하는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備力이됨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진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 完全히 陰陽變調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消滅됩니다
一、男女老少를勿論하고 弱한분에게는第一입니다

藥効가 廣告와 다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오

代金後拂規定及趣意

百補丸의 大特効를 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 만은 試服後代金을꼭잘送金하여주실 人士는官吏層인지 私民層인지富者인지紳士인지 無産層인지 商工人인지알시못하겟습니다 그러타고누구에게든지다 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는 업는 形便인故로 財產有無와信用有無를 不顧하고各界에 代表的左記人士에게 見本的으로 後拂販賣하난것입니다 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朝鮮面長 全朝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各面一等納稅人께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氏에게는 罪悚하고未安하오나 商業上不得已한事情이오니 普通注文으로 해주기를伏望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試服後代金을支拂하거나 藥이 不合하면 返藥하거나할것이고 普通注文도 代金을先金으로 引換代金으로 藥을受取하엿스나 萬一이라도藥이 不合하시면返藥하시고 곳 全額返金을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엿사오니 後拂이나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家의 利害得失은 꼭가습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더저 『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 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은 先金으로할 오니 郵票로나 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이며 官吏면 官名을 書하여주시고 一等納稅人士이시면 住所面長이나 地稅證明書等을 同封하여주시요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 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現金十圓을보내주시든지藥書로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代로 注文하시오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 本社負擔하고 또 本社苦心發見한專賣特許中인 藥始皇이 愛用한 九重宮殿에 秘中秘로 秘藏되엿든 秘方藥超特強精補藥試用小一箱을無料로 添呈합니다 (期限當分間)

藥價 一劑特價 十圓 / 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 共同注文 周旋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藥注文 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
一、振替京城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主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 及商品陳列所
四、京城驛
五、全國和信連鎖店

身體虛弱이過度하여지면後悔莫大이오
百補丸一劑못쓰면平生의恨이됩니다

京城府堅志町(五、一) 電話光六三二番·振替五番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學藝

四月創作評
短篇小說의成敗와 構想·描寫의觀察 ⑬
金南天

그리하야 眞洞세집을 逐出당하고 아는이의집곳방에서 한달정을 지내다가 비름마조며 어떠는凶家라는 편파있는 집으로 移舍하야 若干의安息을 가질려고할때에 뒤모라쳐오는 「病」魔에 擁護당하기까지의 가난과싸워나가는 一女性의이야기가 眞感을 强要하면서 記錄되어잇음에不拘하고 이러한貧窮을 자저오게한 具體的事實에對하야 입을다물고잇음뿐아니라 『나』라는 女人記者가 이險峻한人生의行路를 네사람의家族의負擔을 섬약한등어리에지고거러나가는 눈물겨운記錄에 當然히參與하여야할『나』라는 女主人公의男便、그리고 버리못하는 남동생에 對한 숨길수업는感情、一層 더 나아가서는 性的苦悶과 배우愛의葛藤、市民道德에對한 反抗等에對하야도 作者는 恩惜업시 描破하기를꺼리고잇다。이러한모든點이藝術的으로 充分히 考慮되엇드면 肺病의宣言을받고 凶家에서 무서운하로밤을새우는 主人公의마음은 꿈과닭의소리가아닌 그以上의 數만흔苦悶과 錯雜한幻想속에 떨고 또한 賤待이울것을것이다。뿐만아니라 『凶家』에서 사는 家族을 둘은社會의一員으로 社會的으로關係식히어 이家庭을 둘은現實의大海속에 參與식히는데 잇서서도 男便의登場은 絶對로必要하지안엇을가。

이러케해서 이作品이가지는 藝術的價値는 限업시 低下되어버렷다。그러므로 崔貞熙氏의 作家로서의 뒷날의勝利는 假面剝奪과 自己藝術의 命운의칼을 所持함에잇서서만 確保될것이다。

이번달雜誌에는 崔氏外에 또 한분의女流作家가 創作에붓을들고잇다 그것은「蒼白한안개」(朝光)를쓴 張德祚氏이다。

이小說은 今月中의作品으로 筆者가 읽은것中에서 가장 힘드려쓴作인듯십다。勿論 力作은반다시傑作이아닐지모르나 읽고난뒤에 오래동안 마음을부듸고 藝術的香氣속에 머리를숙게하는作品이라고생각하엿다。이곳에 特히 注意를喚起하고십은것은 綿密하게 이小說을읽어본사람은 누구나 짐작하여갓지마는 이藝術的感興이小說의前半에서 「强」하고 그것이後半第三節에이르러서는 漸次로 低下되어버렷다는點이다。

이藝術的感興이 或은높고或은나저짐이 어데에서原因한것일까? 爲先 筆者는 第一에 構成의缺陷、그리고 둘재로는 리알리즘의 前半과後半에 얼룩이젓다는 두點에서 차저보고저한다

崔貞熙氏의 『凶家』에對하야主로 女流作家의 最初의 難關과 『凶家』評價의焦點만을 設定함에 그치는筆者는 張氏의 이作品에 對하야는 上記한두點에關해서만 이야기함에 그칠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나 制限된 紙面內에서는 批評이 一面的으로 흐를것은不可避할것이아닐가한다。

어떠한것도 그럿것이지마는短篇形式을取하게되는 文學에잇서서는 構成의問題가 다른 어떠한『장르』에서보다도 重要性을띄게된다고 筆者는생각하고잇다。그것은 現實의 廣漠한大海中에서 한개의『테-마』를짜고 가장 擬縮된 藝術的眞實만이 壓縮된 形式으로 『讀者의압헤 展開되게되는때문이아닐가。그러므로小說構成의重點을 처음에두고 풀어나가듯이 描寫를 進行식혀든가 或은 그것을 中間또는終末에 設定하고 모든事件과伏線을 準備하엿는가의問題는 決코制慾히取捨할것이 아니라고잇는다、더욱이 이러한構成上問題가 또한 描寫의大部分을 左右하게될에이를때에 그것은 한개의重要한組目이 되지안을수가업다。그러면 우리들의 張氏의 小說은어떠한가?

『蒼白한안개』의 重點은 두곳에設定되엇다고본다。第一節의下半『순이』가『아씨』에게 비로소紬縵한것을 發覺당하는곳과 마즈막終末에서主人公『순이』가 뱃속에 胎兒를가진채 發狂하야 汽車에치어 죽어버리는곳과의 두곳이다。

이러케 두개로 重點이다고도 할만한곳이 갈러저잇는 關係上讀者의感興이 分裂되게되며 小說의『테-마』와 其他의이야기가보여주는 愚昧한女性의悲劇的인一生이 가장 「壓」縮된形式으로 讀者에게 展開되여야할 性質上 第二의重點이 第一의重點보나 强하여야하고 모든伏線과 準備가 이곳을向하야 進行되어야할것임에 不拘하고 우리들이 한가지로 보든바와가티 이야기는 『第二』가 『第一』에게壓迫을당하야 『순이』가 미치고다시 線路에서 불지스러운死를당하고마는 感傷的인場面은 스스로 그림자가稀薄하야버렷다

(續)

文壇抗辯
―그思想的昏迷에對하야―
⑤ 尹圭涉

白鐵氏는 今日은 뚜렷하고明確한 主流가잇슬 時期가아니라하며 휴맨이즘은 明確한世界觀을 가지지아니한것이라고 하엿슴에不拘하고 이가튼 自己憧着的結論을 나리고잇다。今日의휴맨이즘은 過去의온갓人間的主張에 不信과 懷疑하고 온갓人道主義와 人智、人間的敎養을批判하고 새로운人間을 探求하는것으로 나타난것이다。그럼으로 今日의 휴맨이즘이 가지게되는 歷史的意義는 人間이新生하는 積極的意味를 根底에가지고 잇는것이다。하나 이휴맨이즘이 가지는 積極性에 좀더恒久的인基礎를 주기爲하야는 一定한 世界觀的地位까지 定着되여야 할 다。最近 나는 어떤學友와 對話하는中에 哲學에와서 現代를代表하는傾向은 過去의 大部分의哲學이 宇宙와世界를 對象하고 그것을 解釋해오는데 注力해왓스나 今日의哲學은 人間의 實存的立場에서서 人間을解釋하게되엿다는 이야기를 興味잇게 들엇스나 今日의 文學에와서 그것이 휴맨이즘을 主流로 要求하는 傾向에는 그러한 『世界觀的』인 意味의 恒久的인것이 그根底에 잇는것이요、또 그곳까지 到達하는데서 비로소 휴매니즘은 文學主流로서 確定한 地位를 點領한줄안다」(本紙昨年十二月記載、傍點筆者)

氏는 휴매니즘이 唯物論도아니요 觀念論도아닌 獨特한 世界觀을 代表하는것가티 역이며 唯物論은 人間性과 創造의自由를 束縛하는것가티 結論하야人間學만이 모든 哲學의新原理인것가티 妄信하고잇다。

휴매니즘은 今日에잇서 唯物論의한 課題이요 決코 唯物論의代用物이거나 基礎가 아니다 同時에맑스主義와의關聯에서 말하면맑스主義는 휴맨이즘을 辯證法의眞實한意味에서 止揚식이는即廢棄함과 同時에 保存하며 昂揚식이는것이 아니면아니된다 따라서 唯物論의發展만이 이휴맨이티ー問題를 가장正當히 解決할수잇슬것이다。朝鮮에잇서서 휴맨이즘論議도 이課題를 遂行하는데서만이 意義가 잇는것이다。

나는 이混迷가 白鐵氏一個人에 그친것이라고 보지안는다。十九世紀에서 二十世紀에 이르기까지 가장緊着한 變動의하나로서實證精神에 由因한 人間性의 沒落의問題를 들수잇다 이被害는 이미 全世界를휩쓸고저 늣게야朝鮮文壇을 차저오게된것이다 이受難過中에잇는 우리들로서는무엇이나 할부로떠들면 救濟된다는 謬見을가저서는 아니된다。어느때나 歷史를 擬視하고 自己意識의 維持에 全力을 다하야할것이다。

나는 오늘의作家나 讀者는너나를不問하고 쓰는것과 읽는것을 中止하고서 마음公社會를 見學하고서 오라고 하고십다。氣分의 反動이 認識의反動에까지 미친今日 自己의位置와 立脚點을 뚜렷이 가지지못하고 白鐵氏와가티 『所謂 明日도업고 確性도업는』無責任한 思考를함부로 내두름은 오로지 今日의 混亂을 一層助長할뿐이며 그의 罪科를 깁히거할따름이라고 본다。

朝鮮의作家도 이제 그位置와 態度를 明確히하야 自己와文壇乃至社會와의 關聯性을 머리에 깁히너코서 今日의 混沌을 克服하지안호면 아니될 時期에잇다。人間과 社會를 分離할수업는것과가티 文壇과社會도 分離하여生存할수는업는것이다。어느時代를不拘하고그時代의 最上의良識을社會全體를 貫通하는것中에生動하고잇스니即 組織과組織과를 結合식이며 한動向이 全體의속속까지 波及하여갈수잇는 基本的인 生活共感이 그것이다 그럼으로하야는 個人의打算과感情을 犧牲하여도 當然 遵奉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現代에잇서서도 社會共有의德性이 喪失된것도아니며 拒否된것도아니다。現在 그것을生動하고잇다 作家의位置와態度도 이德性에 依據하지아니하면 그의文學을 決코受容되지못할것이다。(了)

北中行春困記 (1)
天津에서 全武吉

내가 中國의 風土를 보고밟기는 今番까지 第四次에 及한다。이것이 約十年間에 行해진일이니 자조 다녀다면 頻繁한 細흡도 된다 그럼으로마티 漢藥의再湯이나 三湯을 끄린것가티 別로히 큰 刺戟과 興味가 일지못할도 自然한일이다。그러나 元體 中國은 大陸中의 또大陸인지라 無限大라는 形容詞박게 그大量 表示할수가 업나니 나의眼球가 己往에 接한視野는 極히 좁은 範圍며 나의못이傳한 習相도 아주 小部分에서 不過한다。그럼으로 才ネ足을 曝露치언정 材料업슴을 恐할바안이니 春困의 際氣이랑정 促發하여 不규하 旅行記錄을 써보려한다。

×

내가鐵馬우의몸이되여 朝鮮의 西北部를 通過할時는이미 夜暗中이엿다。그럼으로곳 寢臺車中으로 뛰여드러 安休를求할박게 업섯다。그리고 慾外의 事像과 情景을버리엇다。

一夜之間ーー나는 慾外에서 새여드는 新世界의醫普들과『커레인』들으로 번쩍이는 赤火光에놀래여 몸을이르켯다。『커레인』을 들지자 眼中에드러오는文字는本溪湖란三字엿다。벌서本溪湖다。泰天도 머지안타。재ㅅ빗의 瀬曝을둘코오는 赤火光! 또赤火光! 火山의爆發인가하고 留心히보앗더니 製鐵所의 鎔鑛爐에서 녹은쇠ㅅ물을 冷却시키기爲하여 川邊으로나려흘리는 壯觀한 불바다의光景이엿다。

크다란山全部를 둘러싸고 市街의大部分을 占領한것이 이製鐵所와 그關係建物들이니 連延約五里에 及할뜻한 宏大한 設備다。鐵物을 運搬하는 汽車의 오고가는光景이 마티廣場에노흔 玩具車만가트니 可히그規模를미루어알수가잇다。

煙突과 煙突、또連接한煙突의 多數한行列ーー朦朧한黑煙이 雨雲이뭉켜가든시 방부지안케나와서는 大氣中으로 흐러진다。一日二十四時間동안 아니一年十二個月동안 그煙氣는 단한時間이라도 멈출수가업다。한번그全體의鎔鑛爐가 식어지는날에는 그것을再熱시키기에 數日間空消費되는 燃料와 人件費와 諸費用이 赤息數萬圓式 空費될만한大損實다。쇠를먹어야만 이루어지는 近代의文明ーー더욱이나 軍需景氣의 구름다리를타고 世界的으로 上昇하기만하는 鐵物을 녹이나니 그大黑煙柱의羅列은마티 砲列을 一齊히 떠노흔드시 壯嚴無比하다。

車는다시 움지기여 이번에는 廣野를 줄거어간다。이곳에는아직도 山野에 殘雪이만코 解氷도되지못햇스니 朝鮮과의 寒暖의差가 그만큼甚하다。내가朝鮮을 떠나올때 外套입은것을 嘲笑하는 親舊가잇더니 이러한氷雪의殘景은 저옥이慰安을준다。

아직도 六時未滿ーー채東이트기前이다。그러나 廣野에는 벌서 中國人農夫들이 田野에 나서 일을한다。

그들은 獨特한雙輪馬車에 肥料를가득히싯고 몰러가지안흔 冷氣때문에 長袖속에 두팔장을찌른채로 긴노끈달린 長鞭을들고 말을모라가는 情景ーー어데로보나 確實히 아모野心업는 單純한勤勞人間群이다。그리고 異國情緒의 滿點이다。

아모政治的自由도 冀求하지안코 어떤政治的變革에도 關心하지안코 크다란地位에도 野心을 가질念慮도하며 야릇한空想의一片도 꿈꾸지못할드시 보이는勤勞人들ーー그들의이름조차 人間的이아니고『苦力』이란 勞働力表徵하는 두글字로써 表示하여버리는불상한存在들이다。萬一그들을 爲하야 그들이 理解할수잇는幸福을 神前에서 祈求해줄境遇가 잇다면 氣꼿가야『豐年과 일러를 주소이다。』할것박게 업슬듯 하다。『民以食爲天』이란 거리깁업는 古放語가 이에該當하지안을까? 如何間 한번도리켜서 이百姓들의힘으로 그넓은田野를 다 耕作해낫는것을 生覺하면 實로 偉大한勞力임에는 틀림업다。

거못거못한 肥料덩이의 羅列이 碁石과가티 秩序잇게點點히 全野에 瀰滿한것을보면 偉大한 生産藝術의 巨匠이感도잇다。

蘇家屯을 지나고나면 山이라고는 一도업시 다만平平坦坦한 廣野뿐이 끗업고限업시 展開되여진다。그平野의 地均이平坦한 點은 當場에 飛行場으로의 適色이업고 地球가 둥굴다는說을 疑心할만큼 반뜻하고 廣活하야 一望無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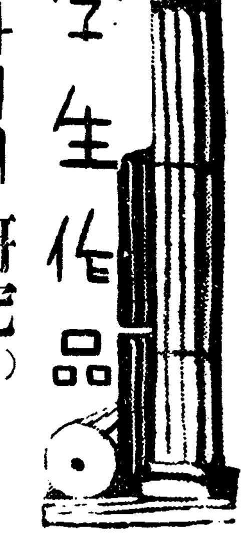
間或部落들이 散在하면서도두렷한通路가업고 平地하기로는田路가 一般이라는드시 馬車의縱列이 밧이랑과 고랑을 分別업시 차지너머서 開拓者的 길을 가고잇슴도 한奇觀이다。

泰天着은 아침七時。東外의寒風 넝넝히 귀ㅅ박휘를 시리게 하니 모다外套자락을 추켜올린다。무서운事變을이르킨軍都인만큼 눈에띄우는 第一景이 日滿軍人이 만흔點이다。興頭의 混雜劇은 亦是昔日과 變함업시人力車와 馬車와 中國人特有의봇다리行列이 撓富한다。事變의後日譚은極히平凡한漫談化하엿다。

劉景淳畫伯個人展

四月十、十一兩日間
本社三層會議室
(入場無料)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學生作品 續『하이네』研究(三)



九州帝大 李有浩

『頹廢』(Entartung)에서는 거즛의人間關係를 노래부르고잇다

『개판놈은 如前히 꼬리들을들고 前처럼恐異를내나 그는벌서 眞實은아니다』

『人生의 航路』(Lebensfahrt)ー이는 하이네의 自敍詩다。(序論參照)『세에누의 바다가에서 새로운배를탄』그가 말세이유의 노래와 三色旗에歡喜는하엿스나 마음속부터의滿足과 眞實에이르지못하엿나ー나의가슴의 갑갑함이여! 이는웬일인가?

그는 『時代의아들』로서 너무나 일쯕이世上에나왓다。아니너무나 늣게나왓나。『나는搖籃이운데서 十八世紀의最後의달빗과 十九世紀의東天(Morgenrot)을 보앗습니다』生産手段의 엄청난 發達의 步調와함께 새로운 時代를 짐머질大불쇼아지ー의 勢力은 大端하엿다하드래도 아직 헤게모니ー는 封建貴族의 손에 쥐이고잇슬때이다。

『거꾸로된世上』(Verkehrte Welt)…… 독일的惡勝와 이愚昧에겨대살려는 불상한인데리의 길(?)을 逆說的으로 비웃는다

『그들술기에 거슬려 헤지는말게、여보게들! 그것은所用업는 일이더니!』

『啓蒙』(Erleuchtung)『무보아라!』(Warte nur!)에서는 銳利한諷刺와 革命的氣息으로 獨逸封建諸侯와 天國에서서만幸福을 約束하는宗敎를 暴露하고 撕擲하고잇다。

十二年間의亡命後 一八四三年가을 하이네는 獨逸방문을하엿다 長詩『獨逸겨울옛말』(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1844)은 하이네의詩文의 最高峰이다。이中에서도 그는獨逸封建主義와宗敎에對하여 嘲弄과攻擊을퍼붓지안햇스니 이中에 케준의놀을노래부른곳은 今日까지獨逸國粹主義者로하여금 그들이자랑하는 퍼ー레와견줄만한 하이네를 憎惡케하는것이라한다。

하이네는 第一章에서부터 이러케노래부른다。

『이땅우에 우리들은
天國을 세웟스면、
이땅우에 幸福이
우리를 차저주엇스면。
그리고 인제는
굶지안헛스면。
일하는 손(手)들이 어든것들을
노랑뱅이배스대이들
삭이지 말게。

이땅우엔 모든사람이
먹고 남을 팡이나네。
장미도 피고 天人花도
美도 잇스며 愉快도
豌豆도 다가티。

그러타。豆꼿이 터지거들랑
누구든지 콩을 먹을수잇네。
天國은 天使와
참새께나 맛겨두세。(第一章)

一八四八年二月ーー이해 하이네겐 宗敎的及政治的變化가 이러낫다。

『나는 政治上 何等特別한進步를 자랑하지못하겟다。……神學上 벌서 前에告白한것처럼 迷信 人格的神에復歸한것으로써 나안이것다』(Romanzero)

이 하이네의 宗敎上의退步는 單純히 이로만 끄치는것이 아니라 그가 政治的으로도 進步性을 일흔데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다。다음의 콤무니스무스와 民衆에게對한 그의憎厭中 이것을 엿볼수잇다。ーー宗敎的으로 汎神論者이엿든 그는無神論에到達치못하고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者이엿든 그는民衆에 對한同感에도 不拘하고 콤무니스트가 될수업섯스며 無神論이 民衆과 結合하여 콤무니스무스가 猖烈한姿態를 낫타내슬때는 그는無神論과 民衆과 콤무니스무스에 厭憎의 言語를던젓다。

無神論이 學者의 高貴한黨派語로서 使用될때만 限하여 그는 이어떤貴族이나 牛酪과魚油燈우에서도 이가튼 問題를論하기始作한것을 보앗슬때 그의無神論은 終幕을 닷엇다。(告白)

하이네는 一八三〇年二月엔 喀血하엿다 그리고 一八三三年엔 癩痺症을어덧스며 三七年엔 게다가 한눈까지잇서 視力의急速의減退를 隨作하엿다 四六年부터 더욱惡化하여 一八四八年엔 그우에도 脊髓炎까지 잡머지게 되엿스니 外出도할수업게되엿다 이리하야 一八五六年二月十七日 巴里에서 客死할때까지 그는잡자기의墓』(Matrazengruft)가운데 드러누어 잇슬수 박게업섯다。

『나는 정말 사러잇는지? 나의 몸은 시들수잇는대로는 시들엇당 소리밧게 아모것도 남어잇지안타。한밤의 靜寂속에 들리는소리도 나의작자기의 모까지 드러오지는안는구나……安息이업는奪-문는소리들며 懷紙와冊을 쓰지안는 死人의特權을 缺한죽엄。ーー이것은 痛苦일어다다。……그러나 나의죽엄이느린 나의相의기리도 벌서前에 재엇故로 이놈은 내개도 그러치만 동모들에게 실증을주는구나。그러나 여보게들 좃참고잇게。무슨 일에도 내종이란것이잇스니。君들은이제 君들이 때때 내가演하는 興이 나는 짧은 興이 나지안는 人形劇을보고 즐겨하든가가가 닥쳐잇는것을 볼터이니……』(一八五一、로만체로前記)

이病魔가 그로하여금 情熱을 식게하고 世上全體를 꺼지게까지하엿다。

『죽엄이란 조혼것。그러나 어머님이 우리를 나어주지안엇드냥 더욱 조왓슬걸』

獨逸에 잇서서는 一月革命의 다음해 一八四九年以來 反動期가 始作하엿스며 五十四年엔 絶頂에 이르럿다。脊髓癆에 痲痺한 하이네는 亦是 當代唯一히 銳敏한『칼바노메ー타ー』엿섯다 이反動期에 칼바노메ー타ー 하이네의 針은 왼쪽으로 向하엿다。그는 그가煩悶하엿스며 두려워한 콤무니스무스에 새로운 希望의 눈을 돌니엿다。

『全社會組織을 威脅하고잇는이 喜派는사람들은 그들의理論이透徹明析한故로 英國에잇서서의차ー치스트와 平等黨員과 其他諸國의 革命家들보다 훨신優秀하다 그理由는 그들을 몰아잇치狂이처럼하는가운데는 메토ー데가잇는故로다 獨逸에잇서서의이들도 有名無名을 通틀어 偉大한論理學者며 그第一優秀한사람들은 헤ー겔學派로서 生出하엿다 그리고 疑心업시 獨逸最上의 有能한頭腦를가지고 第一精力的性格을가지고잇다 데보르티웅을 指導하는 이들博士와 그 果敢한 弟子들은 獨逸이 가지고잇는生命을가지고잇는 唯一한 사람들이다。未來는 그들에게屬하고잇다。그리고 其他의 모든 黨派의不器用한 代表者들은 푸랑크홀트의 聖폴로寺의돔(獨逸議會ー舟橋敎授)밋레 重하게도 棺가운데너어 파뭇치어잇다 내가여게서 말하는것들은 希望도안이며 愁訴도안이다。나는 事實을報告하며 眞實을 말할뿐이다』(告白)

이리하야 하이네는 남은엷이 얼마업서슬때 苦의生活에서 어드인데리겐트로서의 거줏업는告白에까지 일으고말엇다。

『希望이 안인事實』이 드디여그에겐 希望으로進展하엿다는것을 루테티아의불난서版序文을페는이들은알것이리다ーー그날이올날의 여보면 하이네가 時代의象徵으로서몸소多難한生涯를 마춘 一八五六年의前해 一八五五年三月三十日로 되여잇다。(完)

今年度 市內各中等學校入學試問題 ⑰
(中東學校)

國語科

一、左ノ語句ニ讀方ヲツケナサイ
苦行 秩序 念入 需要 新手
思召 想像 成就 雜木 平等

二、左ノ語句ヲ使ツテ短文ヲ一ツヅツ作リナサイ
けなげ
たのもしい
つら〱
はる〱
しみ〱

三、左ノ文語ヲ口語ニナホシナサイ
大工場まで設置せらるゝに至れり
一錢も殘らずなりぬ
用ひられんことを求めぬ
其の功少からざりき

四、左ノ語ノ意味ヲ書キナサイ
開拓＝ 波止場＝
著述＝ 催促＝
和服＝ 富貴＝
獎勵＝ 供給＝
發明＝ 故鄕＝

五、左ノ漢字ヲ使ツテ熟語ヲ一ツヅツ作リナサイ
姿＝ 壯＝ 若＝ 腹＝ 趣＝

六、左ノ一組ノ語句ヲ皆使ツテ一ツノ文ヲ作リナサイ
勉强、 忘、 大、 熱心、 進、 學業

一、次ノ文中片假名ノ所ニ適當ナ漢字ヲ書キナサイ
市町村長や(ギキン)を(センキヨ)するには(モツパ)ら其の人物に重きをおいて決して(シンゾク、エンコ)其 私他私交上の(クワンケイ)の爲に心を(マヨ)はすやうな事があつてはならない。まして威力によつて(キヤウセイ)するとか私利によつて(クワンユ)するとかいふやうな(シユダン)を用ひたり、又これに動かされたりしてはならない。

二、次ノ文ヲ讀ンデ分リ易イ表ヲ作リナサイ
社によつて多少の違はあるが編輯局、印刷局、營業局等に分れてゐる。編輯局には整理部、校正部、寫眞部の外に政治部、經濟部、社會部、通信部、學藝部運動部等があり、印刷局は印刷部と技術部とに分れ、營業局は廣告部と販賣部とに分れてゐてそれ〲仕事を分擔してゐる。

三、次ノ單語、文ノ中ニ誤ガアツタラ正シナサイ
大將、 特産物、 傳說、 作年、 指道、
農業、鑛業と並び稱せらるゝ日もさまで遠くはなかろう
一國文化の程度は其の國民が國法を守る精神の厚薄によつて測る事が出來るといはれている。

四、次ノ語句ノ反對語ヲ書キナサイ
嬉しい＝ 危險＝ 容易＝
發達＝ 複雜＝

五、次ノ口語文ヲ文語文ニナホシナサイ
講演致すつもりです＝
講演會があります＝

一、左ノ語句ニ讀方ヲツケナサイ
思召 羅紗 行手 需要 成就
行儀 雜木 觀察 物語 不思議

二、左ノ語句ヲ使ツテ短文ヲ一ツヅツ作リナサイ
けなげ
たのもしい
つら〱
はる〱
しみ〱

三、左ノ文語ヲ口語ニナホシナサイ
大工場まで設置せらるゝに至れり
一錢も殘らずなりぬ
用ひられんことを求めぬ
其の功少からざりき

四、左ノ語句ノ意味ヲ書キナサイ
開拓＝ 催促＝
同胞＝ 獎勵＝
和服＝ 富貴＝
催促＝ 供給＝
發明＝ 故鄕＝

一、次ノ文中片假名ノ所ニ適當ナ漢字ヲ書キナサイ
饑饉の深大なる(ジヒシン)とあくまで(シヨイチネン)をひるがへさざる(ネツシン)とは獨く人人を(カンドウ)せしめしにや。喜んで(キフ)するもの(イガイ)に多かりき。技術の(セイヒン)の改良、(ゾウカ)を促した。

◇普專學會論集 普成專門學校 研究年報 第三輯(內容)希伯來法(Torah)研究(第三回)=崔泰永 朝鮮開國外交史=淺邊勝美、高句麗社會の生産樣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金洸鎭 On humanism of Irvin Babbitt=J.W.choi等。發行所 京城府安岩町一 普成專門學校 普專學會 定價 三圓五十錢 發賣所 京城府寬勳町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一番

◆新興佛教新聞 第二〇一號(月刊)發行所 東京市豐島區雜司ケ谷一ノ六〇 佛旗社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一部五錢

◆ホーム·ライン 四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一部 金十五錢

◆國民法律 四月號 發行所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七六番定價一部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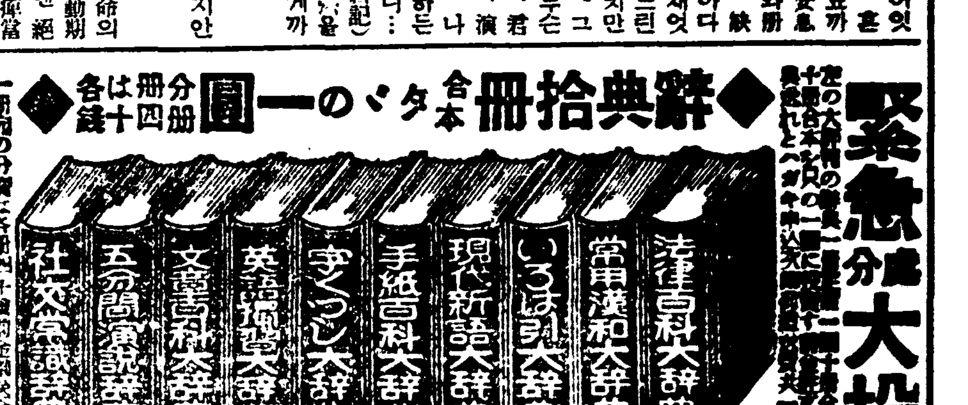
◆東京朝鮮新聞 三月二十五日號 發行所東京市京橋區銀座西六ノ一 東京朝鮮新聞社 振替東京四六一二〇 定價一部金五錢

◆風林 第五輯 詩人論特輯 發行所 京城府慶雲町九六 風林社 振替京城二六〇三六番 定價十五錢

◆四海公論 四月號 四月萬愚祭特輯 隨筆 詩 長篇 映畵農村小說 實話 評論 全國改正列車時間表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가톨릭少年 四月創作一週年記念號 讀者文藝特輯 發行所 間島省延吉街 가톨릭少年社 振替京城二五〇二六番 定價八錢 送料一錢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 合本 タッタの一圓 分冊は四冊 各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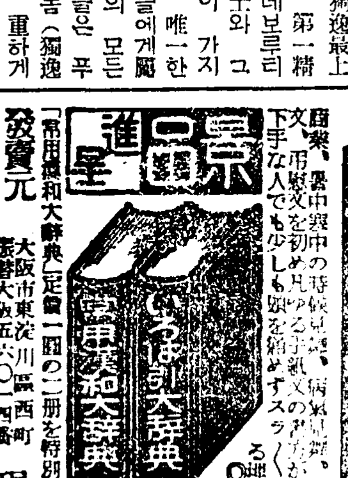


特別景品 無代進呈 一冊宛の分賣に各冊四十錢前金拂込金に限る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手紙上手は一生の德!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不向返金)
特價一圓

進呈 早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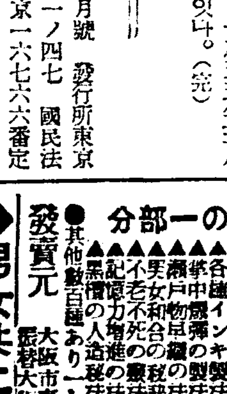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男女共に心得置くべき!
諸禮法 婚禮式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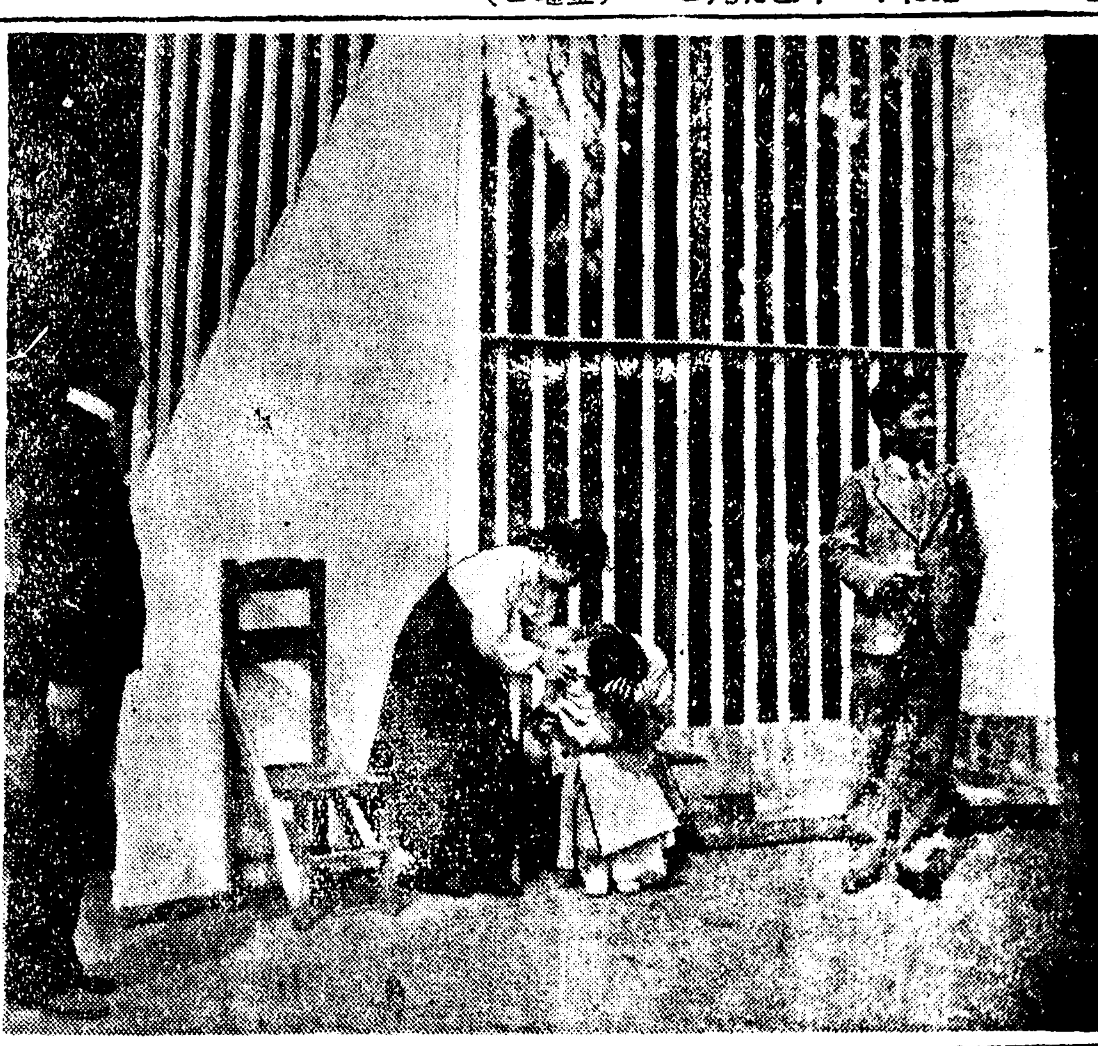
此品五十錢相場 此品八十五圓相場

◆金儲 現代出版社

米國製
純粹眞正
リグレー
리구레

運動에는……리구레ー추잉껌은 消渴을시키며 體力을維持합니다
消化에는……리구레ー추잉껌을 每食後에
强健한齒齦에는……리구레ー추잉껌은齒齦을堅固하게또한齒齦를强固하게합니다
시언한呼吸에는……리구레ー추잉껌은食事、飮酒喫煙後의口中과齒齦를淸爽하게합니다
記憶해두시오……包紙에잇는리구레ー의名은純粹眞正한츄잉껌을意味합니다

JR—4



◇…劇硏第十六回公演 演習光景…◇

劇硏春期公演에 『카츄-샤』를上演

四月十、十一日兩日間 市內府民館講堂에서

朝鮮新劇界의重鎭인 劇藝術硏究會에서는 지난번正月보름에 第十五回公演을 가지어 盛況을 이룬後 한동안쉬고잇던바 이번에 또第十六回公演을 今月十日(土曜夜間)十一日(日曜晝夜)兩日間 府內太平通府民館大講堂에서 열기로되엿다 今番上演劇本은露文豪톨스토이翁의 傑作小說『復活』을 佛國앙리、바타이유氏가 脚色한것을 徐恒錫氏가 다시譯編한『카츄-샤』(全五幕六場)으로서 登場延人員六十餘名의 大豪華版이라는데 演出은 徐恒錫、李曉圭兩氏오 裝置는 姜聖範氏 照明은 李相南氏며 主演은 金映玉、李雄兩氏로서 이번上演劇은 從來에도 朝鮮의 舞臺에 여러번 試驗되엇이니만치 同會에서는 이번에 斷然畫期的 記錄을 지어내려고 方今 府內仁寺町一九四番地 泰和女子館內에잇는同會館에서 男女會員의 總出動으로 諸般準備를 着着進行中이다

配役

第一幕 네흘류-도프家別莊의一室
카츄-샤 金映玉
네흘류-도프公爵 李雄
티혼(老僕) 李白
첫재叔母 姜貞愛
둘재叔母 金福鎭
늙은下女 沈淑庚
젊은下女 張英順
農民甲 李相龍
農民乙 成光益

第二幕第一場 旅館의一室
카츄-샤 金映玉
스멜코프 鄭龍瑞
빌지코와 姜貞愛
칼리킨 朴商翊

第二幕第二場陪審員評議室
네흘류-도프 李雄
陪審長 申泰善
陪審員一(退職大佐) 李薰
同 二(敎員) 崔鳳則
同 三(商人) 金處乙
同 四(職工組合長) 金建浩
同 五 李元榮
同 六 李憲
同 七 金炳秀
同 八 成光益
同 九 李相龍
小使甲 李求榮
同 乙 金大奎

第三幕 女囚監房
카츄-샤 金映玉
표-도샤 李淑庚
大로시아 姜貞愛
美人 兪貞任
老女囚 金福鎭
女囚 張英順
네흘류-도프 李雄
파나-린 孟曉植
看守 鄭龍瑞

第四幕 監獄內病院
카츄-샤 金映玉
네흘류-도프 李雄
파나-린 孟曉植
病院長 安福祿
同助手醫 朴商翊
小使 李憲

第五幕 시베리야
카츄-샤 金映玉
네흘류-도프 李雄
씨몬손 宋在魯
마리아 金福鎭
늙은女囚 姜貞愛
젊은女囚 李淑庚
病囚 成光益
護送士官 尹芳一
護送兵 李康成
商人一 李憲
同 二 李元榮
流刑囚多數

新京의劇硏究團體 白鳥會第二回公演

오는四月八日公會堂에서 本報新京支局後援으로

新京에잇는 同胞들의 劇硏究團體인 白鳥會에서는 지난번 第一回公演을하야 조흔 成績을 어덧스며 또다시 第二回公演을 오는 四月八日 午後七時부터 新京紀念公會堂에서 本報新京支局後援으로 開催하기로하얏다 當日의 會費는 場內 整理費로 卄錢均一밧기로 되엿는데當日 上演할 劇本은 同會文藝部編인『貞操』一幕과申應作『문허진設計』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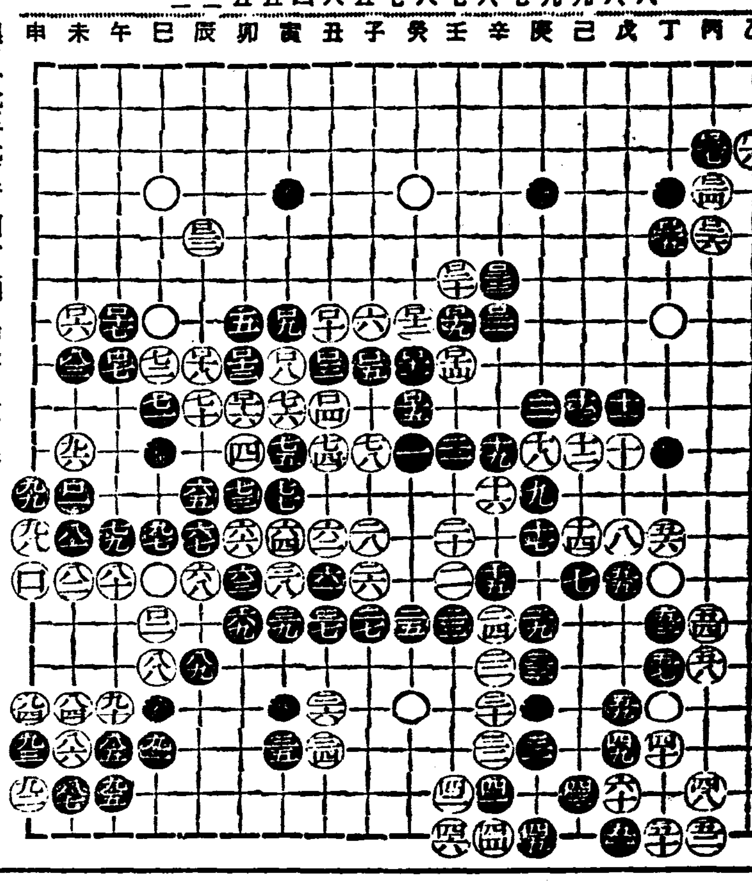
카르보의"椿姬" 런던에서大好評

北歐의明星그레타·가르보의 마르게릿트 美男로버트·텔라의알만의粉裝——이것은 近來에드물게보는 名콤비로서 巨匠큐-콜다의指揮下에 英國의BG·스타디오에서 製作된『椿姬』는 三月初旬 런던의 엠파이어座에서 封切되여서 非常한好評을밧고 連日大滿員의盛況을이루우고잇는데 카르보의演技는정말놀랄만치 能爛하야 義理와病魔와純情에彷徨하는 薄命의女性 마-게리트의 姿態는 카르보가 아니면 나타낼수업슬만큼 놀랍게 잘되엿다 이리하야 婦人觀客은 약속이나한듯이 모다 손수건을 얼골에가리고 목놓고우러서 런던의 新聞은 카르보의 演技를 놉게評價하는一方『지금부터『椿姬』를 보시랴면 먼저 손수건을 準備하는것이조타』고 하얏다 (런던發同盟)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盧史建
黑 蔡種文
四目半減

●一一三 卯의八
○一一四 壬의八
●一一五 癸의九
○一一六 卯의九
●一一七 午의七
○一一八 辰의八
●一一九 壬의七
○一二〇 壬의六
●一二一 辛의七
○一二二 辰의五
●一二三 辛의六
○一二四 丙의四
●一二五 丁의五
○一二六 丙의五
●一二七 丙의三
○一二八 乙의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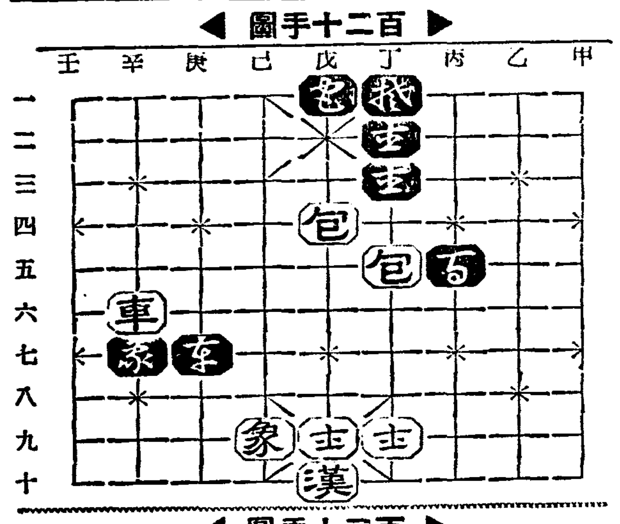
傍觀記

黑□一七(午七)로 □一八에 中央白軍을 斷絶하면 成敗는 在此一擧의 感이有하나 互相讓步가 國手의 體裁인듯하다 白□二二(辰五)은 攻防兩全의 高手이요 黑□二三(辛六)도 亦高見이다 白□二四(丙四)는 察局均衡의 適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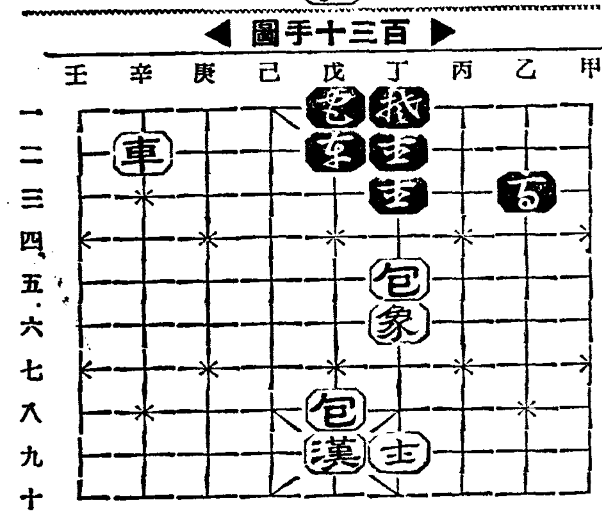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十)

漢先手 李在鳳
楚 全于石

◀百二十手圖▶



◀百三十手圖▶



戊七漢—丁十
庚七卒—丁七
己九象—丁六
丁七包—戊七
辛十車—辛三
丙五卒—乙五
戊四包—戊六
辛七卒—戊九打士
丁七漢—戊九打象
戊七卒—戊三

라디오

八日 (木曜)

◇午後六時 하-모니카一、三重奏 노래에마추어춤출시다…아니 一빙바-린作曲 二、三重奏 나-나의죽엄…벨고레지作曲 三、獨奏 아르르의색씨…비제作曲 四、二重奏 아르르의색씨…同上 第四樂章 五、三重奏 세레나-데…토세리作曲 M、K、M하-니카뻰드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中央佛專教授 金敬注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職業紹介
◇七時三〇分 婦人講座 李淑鍾
◇同八時 聖劇 佛陀의弘願 二場 長那(主人)…安再淳 摩耶 斯羅(그의妻)…池玄宮 早變(長子)…柳今先 速離(次子)…宋瑞順 優陀羅(主人의後妻)…金福姬 船工…金甲寅 村女(甲乙)…李永愛、諸英濟 出演 明星學院生徒 指揮 任宅宰 效果 金觀月
◇同八時三〇分 音律 黛山會相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載弼 杖鼓 池龍九
◇同九時 同心曲 金壽男 申應善

第一放送

◇同六時(大) 音樂と劇
◇同六時二五(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大)『아시베』舌
◇同八時四〇分(城) 映畫歌
◇同九時(東) 浪花節

九日 (金曜)

◇午後零時五分 花草四巨里外 一、花草四巨里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타령 高桂仙 高飛鳶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天然痘이야기 醫學博士 韓京淳
◇同六時(平)童謠와唱歌 一、齊唱 봄노래 二、獨唱봄비 三、併唱 누나와동생 四、獨唱헌모자 五、同 송아지 六、併唱 도적쥐 七、獨唱 제비남매 八、齊唱 물방아 九、봄이오네 十、併唱 맴맴 十一、輪唱 새벽 平壤鈴蘭會 伴奏 朴明洙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京城附近의探勝 文一平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女人國說話(一) 崔南善
◇同八時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界面頭擧 歌 文明仙 朴桃姬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四節歌外 (一) 四節歌 (二) 鄭瓊瑨 金泰運
◇同九時 連續對談 天下絶色(二)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二曲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仙) 佛論講座
◇同七時三〇分(東大) 東西花巡禮
◇同九時(東) 時事解說

十日 (土曜)

◇午後〇時五分(大)짜스 엠프레스·옵·브리테인號 乘組樂團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女性과스포츠 朴奉愛
◇同一時三〇分 春期競馬大會實況(邦語) 京城東大門外新設町競馬場으로부터中繼(京城、平壤)
◇同六時 童謠齊唱 一、북쪽별 二、먼지내는자동차 三、조희배 四、적은배 五、집신짝 六、두루마이 七、꼬부랑두던 八、햇빗은쨍쨍 九、개암이 十、밤한톨이떽데굴 十一、개고리 安城東里幼年主日學校 피아노伴奏 尹錫完 指揮 金世炯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初等國語講座 高橋平次郎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女人國說話(二) 崔南善
◇同八時 豐年歌外 一、豐年歌 二、金剛山打鈴 三、사발가 四、漢江水打鈴 五、朴淵瀑布 六、密陽아리랑 權瓊蘭 細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同八時三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赤壁歌 鼓手 池龍九 姜桂紅
◇同九時 連續對談『天下絶色』(三)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大) 짜-스
◇同六時(東)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어린이와家庭의밤
◇同八時 (東)노래이야기
◇同八時二五分 (東)琴과童曲
◇同八時四五分 (東)獨唱
◇同九時 (東)童話劇

兒孩들의 偏食을 버려두면 안된답니다

食物을맛잇는것만가리여먹는兒孩는 榮養이기우러 發育이늣습니다 發育에는各種의榮養素가 必要한까닭이오니 貴여운兒孩들께 味の素를利用하야 偏食을곳치십시다 먹기실흔飮食도 맛나게 먹을수잇다 합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舗 株式會社 鈴木商店

無代贈呈합니다
美味、榮養、經濟等을兼한 小學兒童의點心을 만드는法과 榮養價를 참考로 記載하얏습니다 送料郵券三錢封入하야 申込하면 贈呈합니다
宛名 東京市京橋區寶町一丁目 株式會社鈴木商店 味の素本舗 出版部

4—B

四月八日부터兩三日間大公開! 코롬비아超特作全發聲漫畫 監督리부스이-슨氏 神馬렉스의復讐 傑作 十二卷上映 名馬렉스 名犬린틴틴二世 主演 노-마·디-라 렛지·온드氏 助演 極東映畫社第一回大作時代劇 仁科熊彦山口哲平 監督 眞田十勇士 羅門光三郞 主演 市川寿三郞 結城小松紀三郞 特別共演 今週 大衆席 料金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次週十一日부터待望의名篇大封切 大都映畫撮影所超特作大名篇 朝鮮映畫 文藝篇 純情海峽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同時封切 將軍曉に死す 게리쿠파氏主演 乞期待!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4月7日ヨリ 上映時間表
京日世界ニュース 10·40 2·24 7·00
淑女は何を忘れたか 10·50 2·45 7·10
朝日世界ニュース 12·07 4·02 8·27
大坂夏の陣 12·19 4·14 8·40
早朝割引御優待 午前十時半まで大人五〇錢小人學生三十錢に優待
明治座

◇四月六日부터特別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開 一回十二時 二回三時半 三回七時半 始映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三大爆彈的巨篇大公開!) ◇金剛·漢陽·合同特作大名篇 叙事詩 人生航路 全十二卷 原作、脚色、監督安鍾和氏 主演 李源鎔、車相銀、文藝峰、朴淵、玄舜英 ◇리차드달마치프리덕金超特作日本版! 大冒險大活劇 달마치肉彈王者 巨匠…노-엘、메-슨氏監督 鬪人리차드달마치氏大猛演 빅다-마-시孃助演 ◇마키노超特作오-ル·토-키時代劇 神洲斬守儉 監督…姓丸浩氏 主演…淸水英太郞氏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番 新富座

六日ヨリ九日マデ四日間公開 階下席 十錢均一 ユニヴアーサル超特作喜活劇 チエスターモリス主演 自殺合戰 ハヤフサ·ヒデト大猛演 跳ね廻る鳥人 阿部九州男·木下雙葉主演 祭唄斬られ善薩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二、 第二回 六、七、 (第一、二回入替ナシ)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四月五日낫부터三日間公開 每日晝夜二回上映 始映낫一時·밤七時四十分 大衆料金 十錢 ▲코롬비아映畫特作全發聲日本版 로스·레다-만監督作品 海!嵐!거충업는사나히의로맨스 悲愴曲! 地獄船몰강 쪼지·방그로프 인사-산 빅타·쪼-리 共演 ▲朝鮮키네마特作映畫 影『그림자』 原作·脚色·監督—春史 羅雲奎 主演 尹逢春·李福本·玄芳蘭出演 ▲朝鮮키네마提供映畫 悔心曲 金淑台·金寶信 主演 往十里町 光武劇場

垈地高價分買要求 六十餘戶住民動搖
郡當局要求엔應할수업다고 代表海州郡에陳情

【海州】해주군당국에서 관리하는 청성묘(淸聖廟)소유토지 해주읍남욱정(海州邑南旭町)일대에 노여잇는 약사천여평은 지금으로부터 칠팔년전 혹은십년전부터 현재그곳에 살고잇는 정길현(鄭吉鉉)(五〇)등륙십여가호가일년에 평오전내지 팔전의차지료로(借地料)로비러가지고 황폐한 밧(田)을수축하여 그우에집을짓고 지금까지사러오든터인데 군당국에서 돌연 지난상월십일에 그들 연고주민에게 최저평당십원내지 십이원십오전의 사정가격을 매어가지고 이가격에매수하라고 하는동시 매수치안는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경매를하겟다하여 이에 당황실색한 연고주민륙십오명은 그후 수차에 궁하야 대책을협의한결과 수일전 정길현등십오명의대표가 군당국을방문하고 다음과가티 그 사정가격의사할감하와 아울너지불방법에잇서서 각개인의 자력(資力)에따라서 오개년년부분상환케하여달나고 진정(陳情)하엿다한다

▲陳情內容

一、從來契約面積은 모다 誤差가 만허서 甚한것은 二三割의相違가잇스니 測量을하야 公正한分筆을해줄것

二、價格은 昭和十一年부터 旣往五個年間의平均價格으로한든지 査定價格의四割引을해줄것

三、支拂方法에잇서서는 各個人의資力과希望條件을 參酌하야 一時拂과 五年年賦로해줄것

양이라한다

郡當局態度强硬 妥協成立에難色
進展如何가注目處

별항―청성묘(淸聖廟)소유토지 불하(拂下)문제를 중심으로하야 연고주민들이 진정을하엿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사정가격(査定價格)은시가보다 훨신 빗싸다하야연고주민들의 불평이 적지안흔데 군당국의 태도도매우 강경한바잇서 쌍방간 절충적타협이 성립되지안는한에잇서 사회문제화할 우려가잇다한다

즉 그들연고주민의 대부분은 하급(下級)살라리맨층을 비롯하야 자유노동자들로 남의땅우에서 가옥이 유일의 재산인데 이연고주민의 딱한실정과 외사를무시하고 군당국의 언명과가티 경매에붓치여 토지뿌로커ー의암약을 보게되면 자연 가옥철거문제까지 예상되는것으로서 사회문제화할우려가 뵈인다고한다

技手辭職問題로 郡守上道協議

【新義州】녕변군농회(農會)촉탁기수(囑託技手)의 련맹사표제출문제에관한야 궁무(宮武)군수가 륙일도청을 방문하고 관구(關口)내무부장 근등(近藤)농무과장 정(鄭)산업과장과 극비밀리에 이문제로 협의한바잇섯는데 자세한 내용은알수업스나 이번에 관련한 촉탁기수는 전부 이동을식힐모양이라한다

忠北邑面吏員에 一齊臨時昇給

【淸州】충북도에서는 만곤물가

地主집에간作人 熟睡中에被殺
咽喉部에갈자국여기저기! 嫌疑者로主人집머슴을引致
殺人?事件

【統營】지난칠일 오전두시반경에통영읍대화정 백만장자 김모(金某)(五〇)의집에서 살인사건이돌발하엿다는급보를 접한 당시경찰서에서는 아연긴장하야 서원을총동원해 가지고 현장을 림검한결과 범인은 그집에와 면서 묵고잇던 광도면안정리(光道面安井里)에거주하는 소작인백주석(白圭析)(五〇)이가 엇떠한자에게 살해를당하야 피투성이가 되여 몹압헤쓸어저잇는데 인후부(咽喉部)에두곳이나 예리한단도로찔린상처가 잇슴으로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고한다 그런데 이살인사건의범인으로 말하면 내부설이가장 유력하게되여 한방에서가치자던 그집고용인김태석(金太石)(二〇)을 인치하야다가 엄중취조하는일방 시체는금천검사(今泉檢事)의지휘로 현장에서 해부한후 유족에게 내어주엇다

海岸警備協議會
不穩分子潛入防止와 密輸取締强化를決議

【新義州】지난오일 오후두시 안동(安東)호텔에서 해안경비협의회(海岸警備協議會)를 개최하야 압록강구(鴨綠江口)에 대한 관계각경비기관의 공동경비를철저히하야 비행을 일소하는동시 각기관과 련락을취하여 홍군(紅軍)반만군(反滿軍)등의 잠입도주와 이에대한 책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일방 밀수(密輸)를 철저적으로 취체하야 치안의확보를 기하기로 되엿다한다

尙州에大火 四戶全燒

【尙州】지난륙일오후한시경에경북상주읍인봉리(仁鳳里) 리원삼(李元三)의집에서 출화하야 이웃동사호를 전소하고 동이시경에 진화되엿는데 출화원인은 점심을 짓다가 부주의로 실화한모

滿洲國僞造紙幣 國境地方에流布
新義州府內에서二次나發見 各商店"五圓紙幣拒絕"

【新義州】동경(東京)에서 일은(日銀)오원위조(僞造)지폐가 범람하야 경찰당국의 신경을날카랍게 하고잇는이때 수일전만주국국폐(國幣)오원짜리위조지폐가 압록강을 건너신의주에 다수히 헤여저 동경의오원지폐거절과 가튼만주국오원지폐거절이라는 망고쪽지가 상점문압헤 나부터거리에 이풍경을 나타내이고잇다

지난팔일오후 여섯시부내 미륵동(彌勒洞) 칠번지 김영권(金永權)(三〇)이가 만주국오원위조지폐를 가지고 부내신성좌(新盛座)에서 입장권을 사려다가발각 되지난오일 부내 상반정(常盤町)다전(多田) 자동차부에상류지방으로부터드러온돈가운데서만주국오원위조지폐를발견하얏다한다

鐵原郡下에서도 草家一戶全燒

【月井里】지난칠일 철원군어운면봉상동(於雲面奉上洞) 김동운(金東雲)의집에서 정오에 불이러나서 마침한식날이되여 동민은 산소에간틈이라 거처업시초가집한채를 전소시키고 월정역에서 경관과 소방조원이와서 진화에노력하야 다행히 린가에는 영향이업섯는바 화재의원인은 아이들의 작난으로 발화되엿다하며 손해는조사중이라한다

瑞山

經濟大講演會

▲時日 四月十一日(日曜)午前十時半

▲場所 瑞山普校大講堂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主催 朝鮮日報瑞山支局

廢校說은잇건말건 校氣는日益隆盛
保聖校大校舍를新築

【宣川】조선기독교 계통의 각학교가 폐교라는 거탄에 명중되여 각학교의 장래운명의 거초에 크나큰 관심을 갓게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선천의 신성 보성 량교도 문제의 와중에 아니들어갈수업는 비운에직면하여 전번 미국 외지 전도국 량방사가 다녀간후 그들의 재단(財團)여하를조려의주시속에서 기다리고잇슴이 도한사실인대 리사는 전연 반대로 아모런 풍파가 업는듯이 보성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의 절대 후원아래 교사(校舍) 신축을 계획하여오든바 근일 그의 구체적 안을어더사원중에 신축공사에 착수하리라고한다 그내용을 드르면총공비일만오천원을 드려 건평이백이십평의 대거물을 건축하게되리라는바 특교실에 이학교의 두교자랑인 가사과(家事科)의 실습을 할처 한결교실이될터로 이를 계기로 약진의 보성 교운에 다시 새로운 빗을 발하리라고 한다

惡土를沃土化

【元山】덕원군농회에서는 금년도부터 군내의 토성(土性)을분석연구하야 영농방법에 신기축(新機軸)을 짓고저 방금준비를 진행중이다 즉 토성의 분석결과에 의하야 영농상비료배합의 합리성을

一、[illegible]

어데 일반농가를하야금 시비(施肥)의 지칭을삼게하는동시 영농개선에 박차를가하야 다각적영농의 강화를 기코저한다는데 이조사결과는 폐지또는 악토를 옥토로 만들수잇슬것이므로 일반농민의 수입증가가될것이라하야 그기대가크다

出奔沙汰 三月以來百廿件
廿前後의少婦

【咸興】출분(出奔)의함흥 근래급격히 근대도시화해가는 함흥에는 매년봄철이되면 리문농촌에서만연히 집을떠나 오는사람 그리고 함흥시내에서다시 큰도시로떠나가는 젊은사람들이 만히늘어 일반의관심을 사고잇는대 근년에도 례년보담 오히려 더늘어서 요즈음에는 이를단속할가자의수색원이 매일평균두건식은 들어온다고한다 함흥경찰서 인사상담계(人事相談係)원의 말을드르면 지난삼월부터 이달오일까지 이가튼수색원이 들어오기를 작으만치 일백이십건의 만흔수에달하는데 그중팔할이나 부녀자요 부녀자의거이 전부가 이십세될락말락한 어린남의며누리라고하는데 집을몰래떠난리유는 그저봄바람에 이끌려 도시로 달려나온것이라고하며 일반가정에일대경종을주고잇다

地方人事

▲任勉鎬氏(新寧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新寧支局來訪

▲金敎一氏(醴泉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醴泉支局來訪

▲徐在烘氏同上

▲百木務氏(虎鳴公普校長)榮轉人事次 本報醴泉支局來訪

瑞山支局主催의 經濟大講演會
本月十一日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瑞山】현하조선경제는 인플레경기로 일반의맘을초산케하고 가장 예민케하고잇다 대국적으로도 진수를아지못하야 매앙로심하고잇는식자들도만흔중 더욱이 충남서산은 지역적으로나 어느모든지 모든것이 비교적문란한관계로 시사경제강연이 긴급문제라할것이다 일측이 이에유의하든 본사서산지국에서는 본사주필서춘(徐椿)씨를특별초청하야오는십일일오전십시반부터 당지보통학교대강당에서 경제대강연회를 개최키로결정하야 준비에분망중인바 부대강연으로 신문독법강좌(新聞讀法講座)까지 겸행할터로서 대성황을 예기한다하며 서산지방으로는 다시도업슬천재일우의기회인만큼 이기회를일지말고 밧듯이청강하야주기를 바란다하며 개최요항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卄歲未滿男女와 文字未解男女는 入場을拒絕함

一、本報讀者로 四月十一日附聽講券持參者에게限하야入場시킴

長篇小說 그의自敍傳【106】
長白山人 作 熊超 畵

북경(十八)

나는 이몽가몽 잠이 들엇다 아마 재듯한 달스그림의 자국이 슬어진때문일가。그러나 잠만 들면 무서운 꿈이엇다。산스속에 길을 잃고 갈팡질팡헤맬때에 이리로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로 가도 길이 막히고、할수없이 절벽을 기어올라 저것이나 넘어가면 살아날가하고 애를쓰나 몸은 무겁고 팔다리는 힘이 빠저서 부덩부덩 애를 쓰는 꿈 캄캄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냄새나는 굴속에 가친 꿈、죽은 사람들이 뼹뼹 러서서 나를 위협하면서 이리가면 이길을 막고 저길을 가면 저길을 막는 꿈、흉흉한 닭는 사람을 업고 물스가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꿈、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반쪽에 나기 날라나려오는 꿈— 대체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가슴 답답한 꿈이 뒤를 이어엇다。

그뒤로 주먹갈이 샛별이 파란 빛을 발하고 잇엇다。나도 뒤깐으로 가던것을 잊고 한참이나 별을 바라보고 서잇엇다。아마 얼마 오래 만나보지못할 별들、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다。그때에는 나는 내가 시작없는 과거로부터 이별들을 보아왓고 끝없는 미래까지 이 별을볼것임뿐더러 그 별들이 잇기전부터 내가 잇엇고 그 별들이 몇 억만번 나고 죽고 하는것을 내가 보앗고 보고 볼것이라 함을 몰랏엇다。나는 유한해서 잇다가 죽어서 없어질것、저 허공과 별들은 무한한것으로 알고 잇엇다『恨吾生之須臾羨長江之無窮』으로 생각하고 잇엇던것이엇다。『無生無滅』을 몰랏엇다。『無去無來無住無異』를 몰랏던것이다。

내가 타구를 버려가지고 물아올때에는 마가렛과 엘렌이일어나서 불을 켜들고 문까지나와잇엇다。

이러한 휴중을 깨고나면또 정신에는 땀이 흘러잇섯다。수없는 뱀들이 길에 널려서 도모지 발 옮겨놓을 자리가 없어서 애쓰는 꿈을 꾸다가 나는 목에 무엇이 감어오르는 감각으로 잠을 깨엇다。입에 한입물렷던것은 찐질한것——나는『피?』하는 놀람으로 그것을 머리맡에 놓인 사기타구에 뱉앗다。불을 켜 보앗다。그것은 과연 거품이 부적부적하는 피엇다。또 기침이 낫다。또 한 입、또 기침이 나면 또 한 입、순식간에 요강이철철 넘게 피를 토하엿다。『인제 나는 죽엇다!』하는 생각이 가슴에 콱 찻다。나는 피를 토하면 죽는것으로만 알고잇엇던것이다。나는 타구를 버려오지아니하고는 뒤대어 나오는 피를 뱉을데가 없음을 깨닫고 비틀비틀 바깥으로 나갓다。이 대청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것이높이가、길반이나 되는 짝문인데 다 대문모양으로 빗장을 질르게되어 잇서서 그빗장을 빼고 문을열자면 왼 집안이 울리리만큼 큰 소리가 낫다。이것은 이 종의 도적 예방일것이다。문밖에는 아까 불던 바람도 자고 높은 집들의 집웅에는 아직도 짙은 달스빛이 비초여잇섯다。하늘에는 오리온의기운찬 성좌가 싱싱하게 빛을 발하고

『왜 찬 바람을 쏘이고 나가서요?』하고 엘렌은 책망하는 모양으로 짜징을 내엇다。『시키실 일이 잇거든 불르시지』하고 마가렛도 나를 나무래다。그들은 내가 타구를 버리고 오는까닭은 모르는 모양이엇다。두 여자는 나를 따라서 내방으로 와서 나를 부뜰어 누이고 이불을 싸덮어 주엇다。『아이 요시바다이 젖어서 얼음ㅅ장이야』하고 마가렛은 얼굴을 찡그렷다。마가렛은 근래에 무척 진실한 사람이 되엇다。그가 회장을 아니하게되매 그의 마음이 진실해진것 갈앗다。시커먼 정복、퍼런 두루마을 입고는 모양을 내일 필요는 없엇다。또 모양을 내대자 엘렌과 나밖에는 보아줄 사람도 없엇다。그런데 엘렌이나 내가 다 그의 벽구완까지 해주는사람이 아니냐。그의 몸이나 마음이나 삿삿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냐。그래서 그는 꾸밀 필요도 없고 허영을 부릴 필요도 없는것이엇다。그는 다만 몇눈이라도 벗이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하게되엇다。나는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것을 볼 때에 일변 가여우면서도 일변 깃벗다。

三千里

中樞院現狀及解剖

金剛山詩藻

名山金剛에갓다가詩와紀行文을짓고도라온諸詩客의雜篇한이詩藻集 曹晩植、朴榮喆、崔瑩東、權春城、鄭儀源、金鍾濟、李源南、薛泰熙、宋柱東、權鳳洙、李殷相、金武吉、羅黑鋼、辛泰嶽、朴貞熙、車相瓚、李鍾麟、韓鉦出、申不出、羅雲奎等諸氏가或은時調로漢詩로或은紀行으로그名山을讚嘆하다

(時評) 野蠻性―李光洙

李商在翁의人物觀……薛泰熙

●中國의最近愛國運動

○鍾閣雜記―鶯公

●國家統一論―王兆銘

○名士의近況과雜誌片片去來草

題字―安昌浩

女學校先生이모여『女學生의戀愛와結婚觀』批評會

學校敎師

女學生들의男性觀이달너진것이다지금은로ー맨스보다衣食住의安定을結婚의첫條件으로또美男보다健康男을더조케보것이現實로淨化하여간다

匿名座談會 批判하는

☆愛國『航空萬人計』案

政治的・經濟的・文化的으로우리들은엇든慾求을가젓든가(羅公民・李晟煥・宋奉瑀・金能秀・金鍾範・南百祐等諸氏가그뜻을적다)

總督에呼訴함

詩經數章―金岸曙

五夢女映畵感―李泰俊

그리운 愁心歌―朱耀翰 春園

端宗辭世詩와文章集

小說 발상전―廉想涉

漢哭詩・雅筵月南翁……辛鍾革・權東鎭・尹益善

畫報 四月의香氣와風景 戰雲속의極東軍備

四月上旬號 月二回發刊 定價二十五錢、半年一圓三十錢、一年五圓 十錢、注文必先金 京城鍾路二丁目、振替京城一九四九 發行所 三千里社 各處支社募集月收八九十圓以內規景進呈

丁七星氏・羅蕙錫氏

追悼 社會葬十年祭의李商在 四月七日은十年前社會葬때! 世人이哀悼하는 ……氏의글!

다시妓生되고저 丁七星 녯날權友會執行委員長으로社會運動의旗頭에섯든鬪士가深刻悲痛한이一文을革하야時人을울게한다

百萬圓級韓仁輔孟永玉登場人物記

新婚生活設計書 金蓮實 出張結婚、別居結婚을實行하고잇는人氣女優의新婚生活設計書、젊은이의가슴을 소란케한다

鉛은新未亡人 裵龜子의哀愁 東洋劇場의女社長으로君臨하는한편舞台의花形舞踊家로長安人士를惱殺하는女史의繁華로운反面에흐르는이哀想을들으라

★나의男裝記 卜惠淑

世界의女傑들 (십푸손夫人級이하들)

百萬圓級

▲半島레코ー드市場異聞集

地方人物記(新上金貞琡氏)

★世界一週에오르면 서―崔承喜

■美國록펠라의私生活 世界第一富豪의生活은엇더한가

◆文壇太平記

愛情에우노라 羅蕙錫 畵筆을안고山間幽居三年에이女流畵家가남에數倍하情熱을기우며、心懷를記하다

準戰時工作의日中三大國會―蘆沛鄕人

朝鮮十大金鑛調査記 (자랑할朝鮮사람所有十大金鑛의全貌紹介)

◆二百六十萬呼價의永平金鑛과李鍾萬氏人物記

平壤監司豪華史 申鼎言

經濟朝鮮解說 平時産業의 戰時轉換力 ②

毒瓦斯에對한 基本資材에 한나며 火藥、爆藥의 基本資材는 硝酸、鹽酸、硫酸等의 一連의 酸工業에 待한다。硝酸製造의 中核가되는 窒素를 平時製出하는 肥料工業이 農民의 集約性으로부터 오는 肥料需要에 依하야 制裁를 넘어서 膨大且急速한 發展을 보인것은 經濟的理由와 共히 戰略的理由를 併合한것이다。

그리고 現在及 將來에 備한 强大한 生産力으로서하면 軍用爆發供給에 對한 焦慮를 解消시켜줄수있을뿐만아니라 能한 軍需를 充足하며 또民間消費의 正常的限度를 保持할 必要上 生産設備의 擴大가 不可缺한 戰略的企圖로하는 生産能力의 保持를 强調하고 그것이 近日의 硫安公定價格論爭에 反映하야 肥料資本으로하여금 低位決定을 하기爲하야 新增設强化를 부르짓게하고있음은 窒素의 軍需的意圖를 暗示하기에 充分하다

×

酸工業은 肥料工業을 中心으로 諸種化學工業의 隆盛에 따라서 近年 顯著한 發展을 하였다 于先 硫酸工業에있어서보면 全消費의 八割以上은 硫安、過燐酸石灰가 占하는 點으로보아 肥料會社를 主로하는 昭和十一年度의 生産總量은 三百六十萬噸에 達한다 그 原料인 硫化鑛及 硫黃鑛은 그産出이 豐富하며 硫化鑛의 産額은 年百八十萬噸에 及하는데 이硫酸總額의 大量인데 不拘하고 純、强及發煙硫酸生産은 겨우年五十萬噸으로 全生産에對한比率은 歐米諸國에比하야 顯著한相違를示하고있다。

×

다음은 硝酸인데 硝石法에依한硝酸製造는 過去에 私營되고 陸海軍의火工廠을 비롯하야 日窒、三池染料、住友化學을 主體로 그太半은 合成硝酸法으로 進하고 年額八萬噸의九割까지를 占하고있으며 그 三割八九分이 爆發物製造에 從用되고있다。

醋酸도 合成醋酸 醋酸과水素를 直接 接觸으로 綜合케하고 現在 十萬噸中約四萬噸으로 推定되어있다

×

以上은 酸類의 基本資材인 酸을中心으로한 酸工業의 現勢인데 硫業의 發展가 高級化되어맞어 高級火藥爆藥의原料인 구리세링의 重要性을 沒却할수없다。

歐洲大戰後에있어서 日本東部 前身日本구리세링工業도 政府의補助會社로서 생기어는바의 製案의하나이던 合同油脂의 硬化油를 原料로하야 이것을 加水分解하야 생기는것이 『구리세링』이다。

濃硫酸、濃硝酸을 作用하야 得하는 『니트로구리세링』은 爆藥의 重要한 素材로서 鑛山其他爆發物에 使用되는 同時에 戰時에는 火藥의 主調가 되는것이다。

×

그러면 硬化油는 現在用途別로 如何한 消費를 보이는가

(十一年度單位千噸) 販賣用七六(主로서石鹼、蠟燭用) 自社石鹼用二五 其他一五 구리세링八 計一二四

即生産額은 十二萬四千噸으로 其中四萬噸約三割強이 輸出로 … 有事之時에 … 換算할수있는것이나 硬化油의 原料인 油脂는 日本海를 中心으로한 鰮油를 비롯하야 滿洲大豆로부터 大豆油를짜고있서 原料資源으로서 自給의 限界에까지 到達하엿다。

×

『구리세링』의 用途別分을 보면 醫藥、化粧品用을 主로한 消費方用約六千噸、爆藥用八百噸、工業用四百噸、火藥用八百噸인바 昭和八年의 구리세링總消費四千三百噸中 火藥用이 一千六百噸에 達한 販賣에 反하야 十一年은 … 總消費八千噸中 火藥用으로서 겨우 一割이 六百噸에 不過하고 局方用이 六千噸의 絶對量에 達한것은 上海事變을 中心으로한 火藥急造의 影響이었다

—(계속)—

小規模土地改良 國庫補助는 五割

今年中五十個水利組合成立 經營은 安全第一主義

旱害對策으로 着手케된 小規模土地改良事業은 十五個年間每年三千五百町步에 年額二十八萬圓의 國費補助로 不良灌漑畓의 改良을 主目標로 今年부터 開始키로되어 土地改良課에서는 그準備에 着手하엿다 從來此種의 土地改良事業에는 國費補助가 事業費의 二割乃至三割이든것을 今般에는 國費補助를 五割로 하기로되어 于先水利組合令中 府令으로된 補助規則을 改正키로되어 不遠發布를 보기로되엿다 그리고 事業은 大部分水利組合을 成立식힐터인데 蒙利面積이 二百町步以下로 制限된것이어서 그經營에도 安全第一主義로 하여 水組의 蒙利面積의 經營上 理想的單位는 百町步內外로 보고잇스므로 個中에는 五十町假量되는것도 업지는 안흘터이라 한다 그리하여 今年 新規로 約五十組合의 成立을 볼모양인데 事業開始는 九月頃이되리라고한다

規約數는 日本內地人 千百八十七件、其保險金額二十八萬七千九百三十四圓七十錢、朝鮮人 五千六百八十四件 保險金額百十四萬四千六百七十八圓 合計六千八百七十一件의 百四十三萬二千六百十二圓七十錢이엇다

林業開發會社

八月創立·九月業務開始 늣저도六月中에制令發布

治水事業의 完成과 用材對策確立上 砂防事業完成計劃과 並行하야 造林事業의 大規模經營과 民林業開發의 使命을가지고 組織될 特殊會社인 朝鮮林業開發會社案은 民間出資로하고、政民에서는 不要存國有林野五十萬町步를 빌려 造林製材、其他經營을하는데 二十一個年間 七百四十萬圓의 補給金을 支出키로 議會의 協贊까지 어더잇게되엿는데 問題의 民間出資者에 對해서는 이미 朝鮮內에서 山林經營에 着手하고잇는 三井、三菱、住友等大資閥等의 出馬를 보게될모양으로 大野政務總監이며 矢島農林局長이 이方面에 交涉을 大略마치고 日間歸任케될모양이다 그러고 會社設立까지에는 먼저 制令의 發布를 보아야할터인데 그것은 手續이 簡單하여 늣저도 六月中에는 畢하게될모양이고 다음은 發起人會를 成立식히어 會社創立은 八月、業務開始는 九月頃으로 보고잇다

穀聯改組創總

二十日京城서開催

穀聯改組는 旣報와가티 六日附로서 定款認可가잇서 七日의 幹事會에서 報告承認을 求한結果 各協會는 本月十八日까지에 新協會의 理事가될 丸十七名 丸仁十名 菱ク八名 角フ八名 丸木六名 丸元六名 合計四六名을 選任하고 二十日京城에서 社團法人 朝鮮穀物協會의 創立總會를 開催키로 決定하얏다。鮮米會館의 建設은 工事費의 騰貴와 敷地問題가잇스나 近間工事豫算을세워 協議키로되엿다한다

寸鐵

○『物價騰貴를 抑制함에는 生産力擴大가 가장조혼方法』이라고 이는池田日銀總裁의 意見

○生産力을 擴充하라면 産業資金을 供給해야겟고 그러면 過渡期에 이것이 物價騰貴에 拍車를 加케되겟스니 處理가 困難

○더구나 反動期到來를 생각할때 産業資金供給은 適切을 기어려운것

○陸海軍에서는『軍需會社의 生産力擴大』에 努力中이라고

○生産力擴充時代에 장단이잘마저야하겟는데……

이번申請價도 過分한利潤

硫安 政府態度를注目中

重要肥料統制法에 依한 硫安의 公定價는 製造業者와 政府當局間의 見解에 相距가만허 그決定이 意外로 遲延되던데 對해서 需要者側으로서는 政府當局이 態度가 不徹底하다는 非難조차잇든中 製造業者側으로부터 空氣가 不利함을보고 最高三圓七十五錢이든것을 四月—七月限을 三圓四十錢으로 再申請을 하게되는데 對하야 今後政府側에서 어떤 裁斷을 하게될는지 疑問이나、朝鮮側으로서는 아래와가튼 觀測을 가지고잇다 即

昨冬以來 一般物的으로 物價가 騰勢를 보이고잇는때이라 硫安에잇서서는 先高를 豫想치안흘수업서서 製造業者가 多少高價를 喝한다는것도 無理는업다해도 硫安의 實로 國民的需要品인中에도 貧窮農村의 更生을 爲하여서는 政府로서 積極的으로 價格을 統制하여 農業의 福利를 圖謀하여야 할것은 同法誕生의 本來의 趣旨인은 勿論 硫安의 生産費로 본다면 最初製造業者側의 申請인 二月物三圓五十錢이란것을 噸當으로 逆算하면 九十四圓五十錢으로되니 이러한 計算은 넘어나 過分한 利潤을 計上한 것이다 商工省方面에서는 噸當七十圓으로부터 八十一圓程度로 보고 잇는데 이를 換算하면 噸當七十圓이라면 二圓六十錢이고 八十一圓이라면 三圓밧게안되는데 物價高를 多少參酌한대도 再申請公定價의 三圓四十錢이란것도 아직 高位의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政府의 決定에 依한 公定價를 그대로 實施케되는 朝鮮으로서는 政府의 態度에 만흔 注目을 하고잇다

金組와米倉 調整을決定

金融組合殖産契倉庫와 農業倉庫 正租貯藏簡易倉庫와의 調整은 財務農林兩局間의 諒解가 成立되어 一兩日에 決裁를 得하야 實施키로되엇는데 農業倉庫를 金組로 代業케함에 對하야서는 現地의 事情等을 參酌하야 知事의 裁量에 委키로되엇다한다

釜山寄港

商船갈캇다線 ◇…第一線決定

十四日에出帆豫定 本年度부터 命令寄港이된 大阪商船갈캇다線의 釜山寄港은 四月十四日 第一線하루코丸(五一一九噸)이 入港하야 琺瑯鐵器、陶器、로마트、써-진 一千噸을 積載하고 同日午後出帆할터인데 同日同船은 釜山의 商工貿易關係者를 招待하리라한다 富野京城支店長은 十三日京城發釜山에 出張하얏다

▲簡保新規契約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三月中 新

朝鮮米運賃交涉

四月中에開催키로決定 中間引上은안키로

朝鮮米運賃의 改訂은 八日京城俱樂部에서 開催한 朝鮮穀物協會聯合會代表幹事會에서 朝鮮米輸送協會代表하야 富野大阪商船京城支店長 高井朝郵營業課長兩氏가 出席하고 海運界의 實情에 鑑하야 朝鮮米運賃引上을 容認하야달나는 中間引上에 對하야 懇請하얏슴에 對하야 穀聯側도 船會社의 採算惡化에 依한 運賃引上은 不得已라하야 이것을 諒解하얏스나 朝鮮米運賃의 中間引上은 時日關係로 諸種의 支障이잇서 七月末이 契約更改期가되므로 中間引上은 行치안코 契約更改에依한 六月의 運賃交涉을 繰上하야 四月中에 日本內地荷主와도 協議한後 交涉을 開하자고 答하야 船會社側도 이것을 諒解하고 四月中의 交涉會議開催場所時日等은 穀聯側에 一任키로 決定하고 穀聯에서는 今明日中에 大阪米穀會社其他日本內地荷主에게 照會키로되엇다한다

經濟界消息

○鮮米協會總會=鮮米協會에서는 八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얏는데 附議事項及本年度豫算內容은 如左하다

一、第四期業務報告貸借對照表、損金勘定、其他承認에關한件 二、第四期欠損金處分案承認에關한件 三、十二年度豫算案承認에關한件

四、十二年度豫算內容

國費補助	四、〇〇〇圓
道費補助	七、六九〇
穀物協會聯合會補助	四、〇〇〇
手數料其他收入	二八、〇〇〇
雜收入	三〇〇
計	四三、九九〇

○商工會議所事務協議會=四月十五日新義州商議에서 開催한다고

取引停止 (四月五日)京城府阿峴町三六七 合資會社朝鮮硝子工業所 代表社員 齋藤一郞

產金景氣에서 特殊鑛景氣로

"탕구스텐"勿驚五倍高 漸次自給自足時代

軍需景氣의 昂揚、重工業의 旺盛한 躍進에 依하야 原料鑛石價格은 一齊暴騰되고 그結果 朝鮮의 多樣性을가진 鑛物資源의 開發이 一層拍車를 加하는 狀況인바 産金景氣는 一轉하야 特殊鑛景氣時代를 現出코저한다

其中特히 好轉이 顯著한것은 合金材料인 『탕구스텐』으로 前年의 噸三千圓唱이던것이 昨今은 六千圓乃至六千五百圓唱으로 實로 十割高이며 一兩年前의 一千圓前後에 比較하면 五倍高、亞鉛七割高、硫化鑛四割高(各其前年比較)이다

이때문에 特殊鑛開發의 中川鑛業、小林鑛業等의 好調는 勿論 睡眠鑛山의 一齊活動에 入하는 狀況으로 탕구스텐은 今年內에 國內自給自足이 可能하며 重晶石、亞鉛類、鉛類等도 自給되리라하다

株式 浮動 保合圈內

前場反弛

保合이나 商品高의 支援을 바러 連日 人絹中心의 底堅味를 보여 注目되든차에 昨後場 鐘新中心의 一高를 보여 暫時緊張味를 보엿스나 玉整理는 다시 一段의 進步이 要求되고잇서 人氣는 依然沈靜할뿐아니라 今朝의 經濟株式의 暴落을 보고 氣配는 俄然軟弱化하야 鐘新의 二百九十圓臺再割을 筆頭로 諸株一齊反落寄付하엿는데 그러라고 崩落的市勢가 잇슬까닭이 업는지라 低價에는 依然買物이 잇서 鐘新 二百八十九圓臺維持의 强한步調이엇고 東新도 三圓臺內外의 保合으로 底堅하엿다 結局保合圈內의 一强一弛에 不過하야 依然不變商情이엇다

後場保合

後場은 鐘新이 一圓十錢에 寄付하고 東新도 四十錢高로 始場하엿스나 依然한 浮動에 끈치고 結局保合으로 終始하엿다

欲動而不動!

近者의 市勢의 步調를 보면 그底堅한맛이 좀크리 다짐과가태서 低價가 잇슬것가트면서도 보이지안는데 天井친 市勢로서는 너무도 밋치 단단한것갓다。이底堅味가 첫재는 買方이 아직 完全히 敗退하지아니한것을 보는것이오 둘재로 賣方의 愼重한態度로 賣物이 적은까닭이라고하겟지만 이는 表面的 常識的見解에 不過하고 事實上의 裏面事情은 株價의 人爲的抑壓에 依함이다。이는 證據金引上과 高日步制度로보아서 더히 證明되는바이나 外에 보이지안는곳에 항수업는 面株式昇騰을 制止하려는 政策的 迫力이 作用하고잇는것을 感取할수가잇다。이런데다가 東阪市場의 地場들이 거의 下賣成을하고 取引所에 對하야 株式昂騰抑壓을 爲한 가지各色의 無理한 要求까지 提出하고잇다고하니 이러한 空氣中에서 어찌 株式이 움즉이기를 바랄수잇겟는가? 말하자면 지금은 株式도 欲動而不動으로 그저 서잇는 그場所에 오래 머물수밧게업는것이다 이제 後場에 强한가하면 오후슴에는 다시 보합所에 물아오는 光景으로 말하고잇는것이아닐가 如何든 이리하야 一段의 整理가 進行되는동안에 人爲的抑壓條件이 緩和되고 阪轉政局의 不安이라는것이 解消되면 비로소 이抑壓의 反動을 보이기 始作할것이아닌가 생각된다。左右間 市勢는 當分保合圈內의 一强一弛를 反復할것이다。

▲아루미物에 買氣

人氣는 冷靜하고 賣買薄으로 市場은 極閑散하니 總體的으로 整理途中에 잇기는하나 物良買氣는 依然潛在的으로 動하야 材料잇는것이라면 看取하면 買氣는 곳 動하는 光景이다。電力株는 諸會社解散과 함께 軍部의 再擡頭가 念慮되고하야 買物을 吐해내는모양이나 今朝에는 比較的 단단하야 宇治川電이 卅錢高、同新이 不變、大同電이 五十錢高、同新이 二十錢低等의 氣配이엇고 纖維株中에도 部分的으로 買氣가잇서 東邦人造는 五十錢高로 五二、〇 岸和田紡은 貌七八、〇

國債 閑散裡에 保合

▲東京【東京電話同盟】連日來 市況은 顯著히 閑散不活潑하야 거의 無氣力 賣買로 終始하엿다 따라서 市勢는 全혀 釘着의 保合이오 外貨債도 氣乘薄으로 米貨六分半共히 不變으로 終始하엿다

▲大阪 ▲甲五分利 一〇一、八〇 ▲四三分利 一〇二、五〇 ▲四分半い 一〇一、七五 ▲四分半は 一〇二、一五 ▲二回四分 一〇二、一八 ▲三分半に 八九、〇三 ▲一回分 一〇二、〇 ▲佛貨 一九七、八〇 ▲米貨六分半 三八八、〇〇 ▲滿洲公債 一〇〇、三〇

今日의市勢【八日】

生産力擴充時代에 장단이잘마저야하겟는데……

期米 卅三圓臺突破

後場엔利喰으로少押

前場活躍

今朝阪地三十四圓 四十九錢인 二丁反落을 捕하고 當은三圓三十二錢인 十七丁低中은 二圓六十錢인 七丁低로 場을始하엿다 그러나 阪地二節五十六錢으로 六十三錢까지 緩騰하야 去年天井 五十九錢을 上廻하자 丸大의 又復猛買로 三十三圓臺를 突破한〇六錢을 示하엿는데 그後 金太를 本營으로한 金某의 賣物이 現出하야 阪地五十八錢의 小落과共히 二圓九十九錢으로 下押하더니 結局阪止五十四錢을 보고 九十四錢에 止場하다

後場一息

後場은 三丁高로 三十二圓九十七錢에 寄付하고 二節九十七錢 同價後三節九十五錢 四節八十五錢에 反落하야 高價仲間이엇다

賣物皆無狀態 押目엔또買進

客月以來의 市勢의 步調를 觀하면 去月下旬에 三十二圓〇八錢의 高價는 누구나 春天井을 演出한것으로 보지안흘수업섯스나 그러나 二百二十餘丁昂騰의 反動落이라고는 겨우六十餘丁에 止할뿐으로 結局月末에 至하야는 五十丁內外의 反撥로 納會를 告하고 本月亦九十丁의 一擧棒上을 示한後에도 三十丁餘의 反落에 止한것을 보면 그以上의 高價를 示함에 至하엿슴을보면 此騰勢가 那邊에 까지 猶漲를 지몰음일이다 實로 上記와如히 이러하함만한 形勢를 示하는 正米의 實際事情이 低落을 不許함뿐아니라 此事情을 知한 軟派는 正米의 實情에 拘碍되어 賤入的行動을 加하지못하고 此實機로한 硬派는 押目買의 方針을 捨하지안는 모양이오 賣物皆無의 狀態라하므로서인데 實로 目前의 現象으로보아서는 賣物皆無의 狀態라하

㊑……昨後場에 鐘新이 一躍을하고보니 上分岐나아닌가고 小口買方은 肝膽이서늘 ▲그러나 이는 整理途中의 一戾에 不過한것이 分明하야 今朝에는 다시反落 ▲市勢의 裏面事情은 相當히 强하지만 元體人爲的抑壓이 甚하고보니 힘을쓰지못하는 光景 ▲壓力迫力이 除去되면 爆發할것은 可知로되 지금은 時期가아니로다 ▲이市勢는 적어도 相當한期間의 膠着不動을 더繼續하야 整理를 續行한다음 下放하는듯한 氣味를보이고는 도로혀上放할것가든걸▲그때까지는 아모리헷자 高日步나물어지 별수업는노릇…

㊎……挽近當市場은 丸大店이優勢를 獲得하야 市勢를 釣上하므로 今朝阪仁의 韓는 百五十丁餘로까지 縮少▲아즉도 餘勢는 强硬한모양인데 當地三十三圓臺를 突破하자 傍觀的態度로 優遊度日하든 某有力側은 俄然賣出動을 하기시작하엿다고▲이로부터 한판싸홈이 버러지는모양이로군 觀旋을 奏할者는 누구? ▲그러나 當地는 地場이 買賣成을하고잇는關係上 低落도 容易치안할 모양이오 價位關으로는 買警戒를 하지안흘수도 업는걸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中限三萬石의 朝鮮側은 期近의 當限을 繼續踏退하고잇든바 寄付에 當限을 廣瀨와 汐崎、村岡、中限은 汐崎、岡崎로부터 前退하고 先限은 廣瀨、汐崎、磯崎로부터 一齊히 新規買하엿다 寄付에 地場岩田이 小樹的으로 一千石買浴하엿스나 그後押目買人氣不衰하야 二節에는 …

米正 清算高로 躍騰

側으로부터 또小川淸으로부터의 買物이 增大되엇다 最近 地場의 上軸、岡米、木村은 … 買氣가 優勢해지고 其他는 下長期保로 下賣成이되어 … 賣叩하는모양이엇다 ▲賣方 正米、地場、中東、地場 ▲買方 地場、東京側 地場

京城暴騰 各地淸算의 一齊高로 人氣자못 强하고 産地의 出廻도 稀하야 四十錢暴騰하엿다 ㊀三等 三一、三〇 四等三二、〇〇 一等白米 三三、五〇

仁川急反撥 日本內地賣行期待와 淸算高等의 影響으로 漸昂勢로 良好化하야 適品物色買氣가 旺盛하고 産地頑强으로 一般은 高價買收박게업는 狀態로 氣配는 一擧에 四、五十錢急反撥을 告하엿다 ㊀穀良三等三二、三〇 四等三二、〇〇 銀坊主三等三二、二〇 ○多摩錦三等三二、九〇 四等三二、六〇 一等白米四三、一〇 ㊀三、〇〇

釜山强調 探算點接近으로 期米側制限物色買氣强하고 衆頭上擴大으로 奧地出廻가 적어서 市勢는 連日昇騰하야 又復十五錢上伸하엿다 ㊀穀良三等 三一、七五 四等三一、五五 一等白米三三、〇六

大邱昂進 淸算期近의 頑强으로 買進人氣가 益益强硬하야 唱價一擧에 三十五錢昇騰을 告하엿다 ㊀穀良三等三一、五五 四等三一、二五 一等白米三三、七

群山硬化 出廻는 二十二輛이엇스나 大部分은 倉入되고 現物로서의 賣物은 적다 一方日本內地賣行은 不振이나 期米當限高에 刺戟되어 市勢는 二十錢硬化하엿다 ◎銀坊主 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 三三、四〇

木浦昂騰 産地의 賣惜人氣에 加하야 期米好調를 보고 低價狙의 買氣가 强하야 市勢는 三十錢昂騰을 告하엿다 ㊀銀坊主 三等 三二、三〇 四等 三二、〇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阪仁漸次縮賴 當地頑强으로

昨今阪仁兩地의 仕手關係를 보면 阪地는 三頭側인 武村一派가 猛烈히 買進하는 그反面으로 正米側인 湖先一派는 淺越賣의 方針을 取하고잇스며 中東側인 田中眞은 그賣越派가 아주 鮮明치못하나 … 市勢의 步調가 幾分伸懶의 感을 못한다 그러나 當地는 此에 反하야 … 地場某業者有力側은 大概買賣成을 하고잇스며 … 稍高騰하는때는 電光石火의 形勢로 急反撥을 示하야 阪仁의 韓는 百五十丁餘로 縮少되엇다 勿論 兩地의 仕手關係가 正反對의 現象을 보인다할지라도 … 凶作後의 本色을 暴露하는 百三、四十丁의 縮輸量 示하게될지도 亦未知일것갓다

今日財界 八日

◆米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三三六六	三低
大阪期米先限	三四五一	一高
全三等米 一石	三三三	四〇高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三三五)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	三等	二〇高
고무신 ▲Q大公債	三三	七低

◆株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取新		
東株新		
鐘紡新		

◆商品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綿糸先限		低
棉花先限		低
人絹先限		低
砂糖先限		三低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銀行券 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朝取短期賣買高◆ ◆大阪短期◆ ◆大阪長期◆ ◆短期定期取組◆ ◆短期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大邱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生糸 ◆橫濱生糸◆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銀白金 京城明治町 杉山商會